

# 김승옥 소설 연구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중심으로-

2005. 2.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임 동 미

# 김승옥 소설 연구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 김 경 수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 2.

西江大學校 教育大學院

국어교육전공

임 동 미

## 논 문 인 준 서

임동미의 교육학 석사 (국어교육 전공)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12월 16일

주 심 김 승 희 인

부 심 이 상 란 인

부 심 김 경 수 인

# ABSTRACT

## A Study on Kim Seung-ok's Novels

-Focusing on the characters' actions against the realities-

Lim Dong-mi

Majoring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Kim Seung-ok was a writer succeeding in describing disorderly situation of the 1960's in literary way. Since the dispute over generation, Kim Seung-ok was thought to be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1960's. A lot of critics said that Kim Seung-ok's novels reflected not only changes of overall society of the day but also individuals' consciousness and conflicts the best and Kim was a fresh writer from point of view of languages to do "the revolution of sensibility" as "a frontier of the Korean literature of the 1960's".

Kim Seung-ok novels were researched regarding the generation paying attention to freshness of his literature comparing with the postwar novels, individual literary works and study on writer based on all of his novels. However, the research was limited to short novels to evaluate medium-length novels and full-length novels

inadequately, and to classify the times at changes of his novels unclearly.

The paper examined Kim Seung-ok's novels considering those problems. The novels' characters had extraordinary interests of the day, emotional and moral inclination, the desire and other internal features. The characteristics should be investigated to find out values of the novel works. This is because novels pursue true and genuine values of individuals having problems at corrupt society. Characters' action against the realities should be investigated to know problems of the day and the values that a writer looked for.

The study classified Kim's novels into two parts considering the characters' actions against the realities. The novels of the former term ranged from 'Saengmyeong Yeonseub' to 'Mujin Kihaeng' that described individuals who were confused by the identity of corrupt realities to wander from place to place. Thinking of a crisis of ethics, individuals made 'self-world' to recover their identity and to suppress other persons and show closed personality being isolated from outside world. At last, individuals could not recover their identity to commit suicide or to adapt them to corrupt realities. On the other hand, the novels of the latter term ranged from 'Chana Hanjan' to 'Meonjieu Bang'. Those novels described the ones who adapted them to the realities, and disclosed social problems of the day. The Korean society accomplished rapid economic growth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he economic growth was attained neglecting spiritual values to create a lot of social problems, such as loss of

spiritual values, alienation, and mammonism, etc. Men did not believe each other and thought much of material values rather than spiritual values to destroy social order gradually. The novels of the latter half of the 1960's described self-consciousness and self-examination of the ones who lived life in corrupt way. In the corrupt society, men should not give up life to make efforts to recover social order with love of their own life. Then, the novels of the latter term showed true and genuine life of individuals.

The novels of the latter term were degraded to be popular novels and did not describe a writer's consciousness. All of Kim Seung-ok novels described stories that individuals lived true and genuine lives at corrupt society. The novels of the former term described the ones who were confused with identity to wander from place to place, while those of the latter term did the ones who made efforts to look for true and genuine life.

This study described that the novels of the latter term were put on an extension line of the ones of the former term, and it examined a writer's consciousness of not only short novels but also medium-length novels and full-length novels.

# 목 차

|                                       |     |
|---------------------------------------|-----|
| I. 서론 .....                           | 1   |
| 1. 연구목적 .....                         | 1   |
| 2. 선행연구 검토 .....                      | 5   |
| 3. 연구방법 및 범위 .....                    | 15  |
| II.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기 모색-전기소설 .....       | 21  |
| 1. 윤리의 위기 .....                       | 21  |
| 2. ‘자기 세계’ 추구 .....                   | 29  |
| 1) 폐쇄적 ‘자기 세계’ .....                  | 30  |
| 2) 타자 억압적 ‘자기 세계’ .....               | 35  |
| 3. ‘자기 세계’ 추구의 좌절 .....               | 37  |
| III. 부정적 세계인식과 ‘진정한 삶’의 모색-후기소설 ..... | 46  |
| 1.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외현상 심화 .....            | 48  |
| 2.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정신의 황폐화 .....           | 59  |
| 3. 타락한 사회속에서의 자기 확인 .....             | 69  |
| 4. ‘진정한 삶’의 모색 .....                  | 88  |
| IV. 결론 .....                          | 94  |
| 참고문헌 .....                            | 100 |
| 국문초록 .....                            | 106 |

# I. 서론

## 1. 연구목적

1960년대 들어서 주목할 만한 문학적 변모는 전후소설의 성과와 한계<sup>1)</sup>를 인식하면서 그 문제의식의 내면화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작가층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언어미학에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개인의 내면의식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전대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김승옥은 60년대라는 당시 시대상을 작품속에서 가장 잘 반영하였으며, 언어적 측면에서도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가로 “감수성의 혁명”<sup>2)</sup>, “60년대 문학의 기수”<sup>3)</sup>로 평가되고 있다.

김승옥의 창작활동은 1952년 월간 『소년세계』에 동시를 투고하여 게재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으며, 서울대 문리대학 불문과에 입학하여 교내신문 『새세대』 기자로 활동하면서 서울경제신문에 연재만화를 그리기

---

1) 50년 이후 전쟁은 생명과 죽음을 현실로서 보여주고 세계의식과 대중의식, 정치의 비리와 기성 도덕, 가정의 파괴를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급격한 현실 충격은 작가들의 의식을 성급하게 관념화 시키고 말았다. 일찍이 이어령은 혼란한 50년대를 일컬어 “무중력의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50년대 작가들은 문학이 언어로 된 하나의 질서라는 사실보다 그들 생애의 충격을 담는 그릇으로 보는 틀을 저지르게 된다.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월간 아세아창간호』, 1969.2, p. 254.)

2) “감수성의 혁명”은 유중호가 쓴 평론의 제목으로 김승옥의 뛰어난 언어 구사 솜씨를 지칭한 것이며, 그는 우리의 모국어에 새로운 활기와 가능성에 신뢰를 불어넣었다고 하였다. (유중호, 「감수성의 혁명」,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p. 634.)

3) “60년대 문학의 기수”는 천이두가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을 비평하는 글에서 사용한 말로 50년대의 경화된 엄숙주의, 강력한 교훈주의 문학에서 벗어나 새롭고 발랄한 문학의 영토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를 이렇게 지칭하였다.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p. 617.)

도 하였다. 그의 본격적인 문학활동은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생명연습」이 당선되면서부터이다. 그는 강호무·김치수·김현·염무웅·서정인·최하림 등과 동인지 『산문시대』를 발간하였으며, 이후 단편소설 24편, 중편소설 3편, 장편소설 4편, 미완성 작품 2편, 36편의 콩트를 발표하였다.<sup>4)</sup> 이 중 5편(「그와 나」, 「강변부인」, 「서울의 달빛 0장」,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 「먼지의 방」)을 제외한 모든 소설이 60년대에 씌어진 것이며, 1980년 「먼지의 방」을 끝으로 절필하게 된다. 1965년 단편 「서울 1964년 겨울」로 동인문학상, 1977년 단편 「서울의 달빛 0장」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김승옥은 그다지 많지 않은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많은 평론가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그만의 감각적인 문체, 배경과 인물의 적절한 배치, 치밀한 완결성으로 후배소설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이유도 있겠지만,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1960년대 시대상황과 특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가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는 어느 때보다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많은 해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극심한 경제난으로 빈곤에 허덕이게 되고, 3·15부정 선거가 민중 폭발의 도화선이 되어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4·19는 우리 민중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다는 점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굴복하기 보다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은 1년 뒤에 일어난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게 되며, 이후 국가 주

4) 김승옥은 동아일보(1980.5)에 연재했던 「먼지의 방」을 미완성한 채로 절필하고 기독교로 귀의하였다. 이후 1998년 12월 『세계의 문학』 겨울호에 「시내 산에서」, 「뤼순 감옥에서」라는 두 편을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이전의 작품 세계와는 다르게 종교적 색채가 강한 글이다.

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빈부격차 심화, 물질만능주의, 인간소외 현상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문학 또한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소설은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제현실의 총체적 반영물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문학은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일부, 즉 한 사회계급이 다른 계급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당연하게 보이거나 완전히 은폐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복잡한 사회적 인식구조의 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학이 그 일부를 이루는 사회적 과정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sup>5)</sup>한다.

1960년대 소설은 개인이 “근대 현실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는 한편,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응시하면서 그 속에서 반성하고 회의하는 내면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인”<sup>6)</sup>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김승옥 소설이다. 왜냐하면 김승옥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불안한 심리와 방황을 누구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1960년대라는 혼란한 시대 상황속에서 개인은 어떠한 모습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삶의 방향에 대한 이와 같은 물음은 비단 60년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급격한 경제개발로 인해 빚어진 개인간의 소통단절, 인간소외 문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되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게 되고, 무엇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기준도 상실해 버렸다. 김승옥 소설이 받

---

5) 테리 이글튼, 『문학비평:반영이론과 생산이론』, 이경덕 역, (까치, 1986), p. 15.

6)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1960년대 소설의 미적 주체 구성에 대하여」,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체』, (깊은샘, 2004), p. 63.

표된지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소설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소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개개인의 모습을 확인시키고, 올바른 삶의 방향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 때문이다.

본고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인물은 스토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작품의 의미는 인물을 통해 구체화된다. 작가에게 인물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은 물론 현실에 대한 예언이 되기도 한다. 작가는 “고유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물의 창조는 곧 작가의 가장 큰 성취이자 목표가 되며, 작가에 대한 평가 또한 그가 창조한 인물과 직결”<sup>7)</sup>된다.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적 관심사나 시대적·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설 속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의 의미와 당대 현실을 이해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김승옥 소설은 초기작 「생명연습」에서부터 후기작 「먼지의 방」에 이르기까지 혼란한 시대에 개인의 갈등과 진정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 없는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김승옥 소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기 작품은 자아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이 세밀하게 그려진 반면, 후기 작품은 통속 소설로 전락하여 어떠한 작가 의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기존의 연구가 단편소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중·장편소설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장편소설은 단편소설 못지않게 타락한 사회 속에서 갈등하는 개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혼란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확인한다.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쳐 진

---

7) 최경도, 「소설의 인물」, 『헨리 제임스 연구』 제3호, 한국헨리제임스학회, 1998, p. 14.

정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장편소설의 가치를 단편소설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김승옥의 소설 전체를 텍스트로 하여 타락한 현실에서 개인의 갈등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개인이 바라는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본 고의 연구 목적이다.

## 2. 선행연구검토

지금까지 김승옥 소설에 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후소설과 비교하여 김승옥 문학의 새로움에 주목한 세대론적인 연구로 1960년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문학적 풍토의 변화 및 인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 글, 사고와 글쓰기가 모두 모국어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한글세대로서 이들의 감각적인 문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글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개별 작품론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이는 60년대에 발표된 김승옥의 단편소설에 연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생명연습」,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등의 작품에 편중된다. 분석방법 또한 인물·공간분석, 서사구조분석, 모더니즘적 특성 분석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셋째는 작가론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이는 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로, 작가의 생애 및 시대적 상황, 전 작품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김승옥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려는 것이다.

김승옥 소설에 대한 초기 연구는 60년대 세대 논쟁<sup>8)</sup>으로부터 시작된다. 4·19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60년대 새롭게 문학 활동을 시작한 작가와 평론가들<sup>9)</sup>에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은 50년대의 전후문학과 60년대 문학을 변별하는 과정에서 김승옥을 6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 부각시켰다. 전후소설과 비교하여 김승옥이 성취한 문학의 새로움이란 ‘개인의 발견’과 ‘감각적인 문체’로 요약할 수 있으며, 60년대 현장비평 또한 이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개인의 발견’에 주목한 대표 평론가로는 김현과 김주연을 들 수 있다. 김현은 50년대 작가들을 “55년대 작가”로, 60년대 작가들을 “65년대 작가”로 지칭<sup>10)</sup>하면서, “55년대 작가들이 만든 주인공들이 자신의 상황을 무의지적으로 수락해 버린 반면, 65년대 작가들이 만든 주인공들은

8) 60년대에 있었던 세대 논쟁이란 김주연의 「새 세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아세아』 창간호, 1968)라는 글에 의해 발단이 되어, <서울신문>(1969.5)을 통해 서기원과 김현의 공방전으로 발전하고, 선우휘, 서기원, 오상원, 김현, 김주연, 이청준이 참가한 <주간조선>(1969.6.8)의 좌담으로 일막을 내린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에서 김승옥은 60년대에 주목받는 작가로 부상하게 된다.

9) 이들을 4·19세대라고도 하는데, 문인으로는 시의 황동규, 이성부, 정현종, 이승훈, 최하림, 김지하, 소설의 김승옥, 이청준, 서정인, 박태순, 박상룡, 홍성원, 김원일, 김용성, 이제하, 이문구 등이 있고, 비평가로는 백낙청, 김병익, 김치수, 김주연, 염무웅, 임중빈, 이광훈, 조동일 등이 있다. (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89, p. 252.)

10) 김현은 장용학에서부터 김동립에 이르는 작가들의 면모를 결정지어준 사실이 55년에 많이 일어났고, 『현대문학』, 『문학예술』의 두 문예지가 55년에 창간된 점 등을 들어 55년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염무웅, 조동일, 김치수 등의 새로운 평론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것이 65년이고, 김승옥이 65년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새로운 연대의 작가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점, 무엇보다도 질서나 태제 혹은 전통이 없다면, 작가로서는 자기 자신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이 김승옥, 홍성원 등의 작가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65년대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김현, 「미지인의 초상1-김승옥과 홍성원의 경우」,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pp. 258~269.)

무의지적이고 수동적인 의식에서 점차 깨어나, 그 상황을 뚜렷이 인식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된다”<sup>11)</sup>고 하였다. 김주연은 한 개인의 주체적인 성립을 60년대 문학이 그 전대 문학과 갈라지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면서, 김승옥을 그 대표 작가로 보았다. “50년대 문학이 허위의 타파를 외치다 자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못하고 마침내 허세의 포즈로 떨어져 버린” 반면, 60년대 문학은 “문학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싹튼 시기”였으며, “문학에서의 현실의 의미부터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기였다”<sup>12)</sup>고 하였다. 특히 김승옥은 개인의 발견과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을 보는 의미의 상대주의를 그의 작품 속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트리비얼리즘의 작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승옥의 ‘감각적인 문체’에 주목한 평론들이다. 천이두는 김승옥을 “60년대 문학의 기수”라고 평가하면서 “김승옥은 인간의 소외 의식 및 숙명적 조건으로서의 고독을 추상적인 서술로서가 아니라 존재 현장의 재현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 작가”<sup>13)</sup>라고 하였다. 유종호는 “지적 체험을 감각적·정감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직접적·구체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작가”로 김승옥을 평가하면서, 이를 “감수성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즉 “평범한 일상의 저변에서 경이를 조성하면서 환상과 현실을 희한하게 조화시키는 허구 조성 능력, 기지가 번뜩이는 분석력, 만화경 같이 다채로운 의식의 요술도 결국은 그의 참신한 언어재능에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수성이란 요컨대 이 언어재능이 성취한 혁신의 이명에 지나지 않는다”<sup>14)</sup>고 하였다. 이태동은 김승

11)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pp. 383~402.

12)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월간 아세아창간호』, (1969.2), pp. 253~254.

13) 천이두, 앞의 글, p. 214.

옥을 “1960년대 초 뛰어난 감수성과 입체적인 테크닉으로 습관적이고 타성적인 언어에 젖어 있던 한국문단에 새로운 충전을 가한 작가”<sup>15)</sup>로 평가한다. 이상의 평론가들이 김승옥의 감각적인 문체를 작가 개인의 타고난 언어재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 반면, 조남현은 “전통적인 도덕적 상상력의 방법 거부”에서 출발된다고 본다. 즉 김승옥은 “새로운 감수성과 신선한 축수를 가지고 대상으로서의 삶에 접근한 대표적인 작가이며,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전통적인 도덕적 상상력의 방법을 거부한 데서 발전되어 나간 것”<sup>16)</sup>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한글세대’로서의 문체적 특징을 밝힌 것이 있는데, 이는 식민지 하에서 일본어로 교육받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자유롭게 모국어로 배우고 사고하기 시작한 세대였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의 문체와는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홍정선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김승옥의 소설 언어는 “사건의 이미지를 알려 주는 감각적 언어로 매개시키는 수법은 일찍이 한국의 어떤 소설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법”이며, “젊은 세대의 신선한 언어 감각과 그 감각의 상업화 가능성까지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sup>17)</sup>고 하여 김승옥의 탁월한 언어 감각을 높이 평가 하였다.

6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설명함에 있어 앞의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평론들이 있다. 이것은 4·19의 성공과 좌절, 이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에 주목한 글들이다. 김윤식은 “60년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

14) 유중호, 앞의 글, p. 632.

15)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pp. 143~144.

16) 조남현, 「미적 세계관의 입사식」, 『자선대표작품집-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p. 376.

17) 홍정선, 「작가와 언어의식-해방 후 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p. 171.

것은 자유의 최대치를 보여준 4·19와 그 정신을 억압한 5·16” 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60년대 상황에서 “자유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이 한편으로는 병적인 환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보다 깊은 철학적 추구를 낳았다”<sup>18)</sup>고 하였다. 윤병로는 김승옥을 내성적 기교주의 문학(혹은 모더니즘적 경향)에 해당하는 작가로 보면서, 그의 작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형식에 대한 실험 자체가 시민의식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sup>19)</sup>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 작품론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김승옥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다수의 평론들은 「생명연습」, 「무진기행」, 「서울 1964년 겨울」, 「서울의 달빛 0章」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이어령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 “무진이라는 소설 공간은 지리적 환경이나 상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 의식의 내면, 생의 양식까지를 표현해 준다”고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대 “무진은 나날이 퇴화해 가는 생의 실상을 만날 수 있는 역(逆)유토피아”<sup>20)</sup>라고 하였다. 한형구는 「무진기행」이 중요한 것은 “한국 소설사에 있어서 이른바 ‘귀향’형 여로 양식의 원형”이면서, “60년대 신흥하는 상층 집단의 의식의 최대치를 반영한 소설”이 이 작품일 뿐 아니라, “소위 출세한 촌놈들의 사회 심리학을 고전적으로 투영한 소설”<sup>21)</sup>이 바로 이 작품이라는 점

18)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 392.

19) 윤병로는 60년대 소설을 크게 두 가지, 즉 내성적 기교주의 문학(혹은 모더니즘적 경향)과 시민적 리얼리즘의 문학으로 분류하였다. (윤병로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pp. 392~397.)

20) 이어령, 「죽은 욕망을 일으켜 세우는 逆유토피아」, 『김승옥 문학선 - 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p. 616.

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남호는 「무진기행」의 인물, 공간, 모티브<sup>22)</sup>의 분석을 통해서 이 소설은 “선량함과 순수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는 젊음의 꿈을 좌절케 하는 무력함과 바보스러움 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속물이 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허약한 지인의 갈등을 보여 준다”<sup>23)</sup>고 하였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무진기행」을 분석함에 있어 ‘서울’과 ‘무진’이라는 공간의 상징, 점차 붕괴되어가는 일상인의 가치체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혜실은 위의 평론들과는 다르게 「무진기행」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무진기행」의 귀향과 귀경구조가 인간심리의 전진과 퇴행의 구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 즉 “전진하던 인간의 정신에너지가 일단 외계에 적응하기를 실패하면 무의식으로 후퇴하여 거기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또다시 외계로 향하게 되는데, 「무진기행」은 이러한 인간의 전진과 퇴행욕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sup>24)</sup>고 하였다.

권택영은 “단편 그 자체의 미학성을 완벽하게 지니면서도 60년대 중반 산업화 초기단계, 도시의 소외현상을 보기 드물게 잘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sup>25)</sup>이 「서울 1964년 겨울」이라고 하였다. 김동환은 그가 본 서울은

21) 한형구, 「역사에서의 두려움, 혹은 생활에서의 의욕」, 『한국 근대문학의 탐구』, (태학사, 1999), p. 141.

22) 이남호는 ‘정육’은 순수하고 정직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윤희중이가 타인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것이고, ‘편지’ 모티브는 진정한 자아의 순수성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현실을 거듭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개구리 울음소리’는 소외된 자아의 참모습이 내면에서 터뜨리는 울음소리라고 하였다. 또한 ‘수면제’는 거짓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윤희중의 소극적 반항심리를 드러내며, ‘화투’는 현실과 당당하게 부딪쳐 자아를 회복하려고 하지 못하는 자아에 대한 자학심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남호, 「삶의 위기와 내면으로의 여행」, 『文學의 僞足 이남호 평론집 2-소설론』, 민음사, 1990, pp. 258~260.)

23) 이남호, 앞의 글, p. 262.

24)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나는 귀향과 귀경의 구조」,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4), p. 268.

“의미있는 삶을 살아가는 군상들은 보이지 않고 서로 겹도는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만 보이며, 익명성과 무연성(無緣性)만이 짙게 깔려 있는 곳”이다. 이를 볼때 김승옥은 “역사적 인식을 공간을 통해 그려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작가이며, 이것이 전대의 소설들과 분리되는 김승옥의 핵심”<sup>26)</sup>이라고 하였다.

구모룡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을 분석하면서 그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근대이며, 이 근대적 세계를 환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로 규정될 수 있는 70년대적 사회-인간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가 실종되고 고향에 대한 추억마저 더럽혀지는, 자본과 욕망만이 출렁이는 사회”<sup>27)</sup>를 소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동하는 「서울의 달빛 0장」에서는 성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색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부패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환멸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삶의 진실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sup>28)</sup>고 하였다.

최근 김승옥에 대한 연구는 작가의 전기 및 작품, 에세이, 시대적 상황 등을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추출하는 작가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평론들이 김승옥의 작품을 전기/후기<sup>29)</sup>로 나누어, 전기 작

25) 권택영, 「역사의식을 응집하는 미학적 전략」,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p. 87.

26) 김동환, 「김승옥과 공간적 상상력의 세계」, 『한국현대소설사』, (삼지원, 1999), pp. 406~407.

27) 구모룡, 「근대적 삶에 대한 환멸의 서사-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 『김승옥 문학선 - 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p. 687.

28) 이동하, 「성인의 환멸」,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pp. 136~139.

품이 삶에 대한 진지한 탐색 및 소시민적 개인의 일상과 고립성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아무런 전망도 보여주지 못하고, 60년대 풍속묘사 차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류보선은 “4·19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문학적 언어로 환치시키면서 전후 세대문학의 그 무기력증을 단숨에 뛰어넘은 작가”<sup>30)</sup>로 김승옥을 평가했다. 특히 김승옥 소설의 일관된 창작방법의 원리를 ‘자기 세계’로 보았는데, 이는 “기성의 관념체계, 허구화된 제도, 내용없는 윤리 감각 등에 묻혀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자기 고유의 삶의 논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한상규도 또한 50년대와 변별되는 작가 김승옥만의 문학적 성취는 ‘자기 세계’의 형상화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내면적 개인 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은 “낭만적 환멸”이라고 하였다. 낭만적 환멸은 “현실과 안이하게 타협할 수도 또 손쉽게 그것을 초월할 수도 없는 위태로운 균형 속의 불안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sup>31)</sup>으로 김승옥의 작중인물들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진정석은 김승옥이 “이념이나 현실을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개별 주체의 내면적 세계를 절대화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전후소설과 구별되는 “글쓰기의 새로운 영도 좌표가 될 수 있었다”<sup>32)</sup>고 하였다.

---

29) 김승옥 소설은 1965년 「무진기행」을 기점으로 작품세계가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이다. 이는 전기 작품이 인물의 ‘자기세계’ 추구 양상을 그리고 있다면, 후기 작품은 60년대적 상황에서 무기력해지고,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김승옥의 작품 활동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으나, 전체 소설을 보았을 때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시기를 나누는데 있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30) 류보선, 「김승옥론-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인식과 그 의미」,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p. 309.

31)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김승옥론」,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p. 54.

위의 평론들은 김승옥의 일관된 창작원리를 ‘자기 세계’의 추구로 보고 있는 반면, 이와는 다르게 작가의 세계관을 살핀 것이 있다. 정과리는 “김승옥 작품에서 보이는 ‘서울/시골’의 극단적인 대치감 그리고 시골에서의 파행적인 결말은 이방에 의한 우리의 충격, 그 유혹과 공포의 구조를 탁월하게 제시해 주면서도 해명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sup>33)</sup>는 점에서 그 자체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명석은 김승옥 소설이 모두 인물의 성장과정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니시에이션 소설<sup>34)</sup>의 범주에서 설명하고 있다. “초기작품 「생명연습」에서 「염소는 힘이 세다」에 이르기까지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은 자신이 직면한 환멸의 세계 앞에서 파멸이나 타협이냐는 선택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고, 결국 자라기 위해서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절망과 고독에 빠져있게 되는 것”<sup>35)</sup>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옥의 소설을 정신분석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글도 있다. 이정석은 라캉의 욕망이론을 토대로 김승옥의 작품세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구조화시키려 하였다. 김승옥의 문학에 나타난 욕망의 핵심은 “끊임없이 부조리한 현실에 편입하려는 입사욕망(「건」)과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도피욕망(「무진기행」)과 그리고 부정적 현실을 초월하

32)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김승옥론」, 『문학동네』(1996, 여름호), p. 416.

33)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 김승옥론」, 『오늘의 작가총서-염소는 힘이 세다』, (민음사, 1980), p. 291.

34) 이니시에이션 소설(Initiation Story)은 자아와 세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미성숙기의 주인공이 일련의 경험과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로서, 브룩스, 위렌의 『소설의 이해』에서 ‘Initiation’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소설의 주제에 따른 유형 분류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 이 말은 인류학적인 용어로서 ‘통과제의(the rites of passage)’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p. 349)

35) 김명석, 「김승옥론-유년 체험과 이니시에이션」, 『현역중진작가연구IV』, (국학자료원, 1997), p. 63.

려는 초월욕망(「역사」)의 교차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36)</sup>고 하였다. 김민수는 김승옥 소설을 모더니즘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의 소설은 “4·19세대의 주체적 근대성의 지향이 좌절되는 환멸의 경험을, 교과서에서 배운 근대성의 기대지평이 한갓 환상으로 전화되는 현실적 경험공간에서의 좌절을,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관통하는 실존적 여정 속에서 근대사회의 해소될 길 없는 자아상실과 위기의식을 그려냈다”<sup>37)</sup>고 지적한다. 안혜련은 문학기호학의 방법론을 통해 김승옥 소설을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당대 사회문화의 배경 속에서 그 의미와 구조, 미학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김승옥 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호는 ‘자기 세계’의 추구라는 주체 정립의 양상과 ‘일상 생활’에의 갈등과 편입이며, 이러한 약호들이 1960년대라는 당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소로 작용함”<sup>38)</sup>을 밝혀내었다. 김정남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근대성 담론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다양한 이미지리 사용은 파행적인 역사적 근대성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기여하며, 시간과 공간의 파괴와 해체라는 텍스트의 형식은 선형성(linearity)이라는 근대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미적 근대성의 양상을 나타낸다”<sup>39)</sup>고 지적한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작품분석이 몇몇 단편소설에 편중되어 있고, 중·장편 소설에 대한 평가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김승옥 소설의 변모

36) 이정석, 「김승옥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승실어문 제13집』, (승실대학교, 1997), pp. 352~353.

37) 김민수, 「주관적 심미주의의 변주-미적 근대성을 통해서 본 김승옥의 소설세계」, 『작가 세계』 (세계사, 2000년 봄호), p. 416.

38) 안혜련, 「김승옥 소설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9, p. 4.

39)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2, p. 120.

양상을 살핌에 있어 그 시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고 있으나, 어느 작품부터 후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기에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물의 의식을 작가의 그것과 동일시하여 작가의 현실인식의 한계로 말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은 극복되어야 한다. 실제 후기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작가의식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후기 소설의 작품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넷째,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작품의 형식적인 차원에만 매몰되거나, 작품의 내재적 의미 분석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연구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밀도있게 분석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문학사적 맥락까지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김승옥의 전 작품을 토대로 일관된 모티브, 일관된 주제의식, 일관된 내적 구조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작가의 생애, 수기, 당시 혼란한 시대상황을 감안해 작품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김승옥 소설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삶의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김승옥 소설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가의 세계인식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범위

문학은 그 자체의 내적 질서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가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시대의 현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문학작품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작가와 작품이 형성된 시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조명해야 그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중에서도 특히 소설은 “타락한 사회에서 문제적 개인이 전정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이야기”<sup>40)</sup>라는 점에서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이룬다. 따라서 위대한 소설이란 그 시대를 올바르게 반영·재현함으로써 현실의 객관적 발전의 과정을 형상화된 인식으로 독자에게 제시, 그 독자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 그 본질을 인식하게끔 했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소설은 한 사회의 변동과정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학사회학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골드만의 ‘발생론적 구조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문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문학작품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생론적 구조주의에서 ‘구조’란 “인간과 관계된 사실은 언제나 실제적, 이론적, 감성적 성격을 동시에 띠는 전체적 의미구조를 구성하고 있다”<sup>41)</sup>는 의미에서의 구조이며, ‘발생론적’은 그 구조가 사회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사상이나 작품은 삶의 행동의 총체에 통합될 때에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 받으며, 작품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행동은 작가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사회계급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품의 객관적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이라는 총체에 작품을 결부시켜 역사 발전의 총체 속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sup>42)</sup>이다.

---

40) 뤼시앵 골드만,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 (청하, 1982), p. 20.

41) 뤼시앵 골드만, 『숨은신』, 송기형·정과리 역, (연구사, 1986), p. 10.

42) 뤼시앵 골드만, 앞의 책, p. 21.

골드만은 작품과 작가, 사회집단의 관계를 ‘이해’와 ‘설명’의 관계로 말한다. 이해란, 어떤 의미구조의 본질적 구성관계에 대한 서술이며, 설명이란, 그것을 더 큰 구조, 전체 속에 삽입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모든 부분적 진리는 전체 속에서의 그의 위치에 따라 참된 의미를 갖게 되고, 마찬가지로 전체도 부분적 진리의 진전되는 인식에 의해 파악된다”<sup>43)</sup>는 전체와 부분의 변증법적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사회 집단 의식, 즉 세계관을 추출할 수 있다. 세계관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결합시키고 다른 집단에 맞서게 하는 갈망과 감정과 사상의 총체”<sup>44)</sup>이다. 모든 뛰어난 작품은 하나의 세계관의 표현이며, 세계관은 작가의 의식 속에서 개념적 혹은 감각적 명증성이 최대치에 달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 속에 어떤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것이 상대적 전체성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소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긴요한 일이 된다.

골드만의 이론은 “부분에서 전체로, 다시 전체에서 부분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상호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이므로 모든 결론은 잠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sup>45)</sup> 참된 인식은 절대적인 진리에의 도달이 아니라 그것에 가까이 다가서는 부단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작품의 참된 가치 판단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러한 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할 위험성을 경계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정당하고 거시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김승옥의 작품은 1960년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는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 시기였다. 50년대 6·25전쟁

---

43) 워시앵 골드만, 앞의 책, p. 18.

44) 워시앵 골드만, 앞의 책, p. 34.

45) 박종홍, 「반영론적 소설이론의 고찰」, 『논문집23』, (대구교대, 1987), p. 92.

으로 인해 민족의 동질성이 분열되고, 패배주의와 허무주의가 만연되어있던 것이 60년대 4·19를 기점으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인식’이란 역사의 주체는 바로 민중이어야 한다는 개인의 자각과 함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인식’도 5·16 군사쿠데타로 무참히 짓밟히게 되고, 또 다시 사회는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물질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소외, 물질만능주의, 인간 정신 황폐화 등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자본은 인간의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희생시키기도 한다. 사회에 중심에 있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해 심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김승옥은 이러한 60년대 현실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인간이 만든 제도에 의해 인간의 삶이 구속당하고, 이로 인해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경제나,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 가치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김승옥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살필 것이다. 소설 속 인물은 당대의 “특수한 관심, 정서적·도덕적 성향, 욕망과 같은 내면적 특성이 부여된 상상적 존재”<sup>46)</sup>이기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작품의 의미와 당대 현실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실에서 윤리의 위기를 느끼고 자기 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1962년작 「생명연습」, 「건」, 「환상수첩」

46)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77), p. 54.

과 1963년작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확인해 본 열 다섯 개의 고정 관념」, 「역사」가 있다. 이들 작품 속의 인물은 자본과 욕망만이 출렁이는 사회에서 심한 환멸을 느끼고, 정신적인 가치를 찾고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고향 또한 자본에 물든 서울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고, 좌절하여 자살을 선택하거나 현실에 순응하여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64년작 「무진기행」은 진정한 자기세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작품은 후기 작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 작품을 초기 소설에 넣은 것은 인물의 심리가 고향과 서울이라는 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나타나고 있고, 잠시나마 현실과의 갈등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초기 소설에서 이미 예견되었듯이 자기 세계 구축에 실패한 인물들은 현실에 순응하여 살면서 세상에 대해 부정적 세계인식을 갖게 된다. 1964년작 「싸게 사들이기」, 「차나 한잔」, 1965년작 「서울 1964년 겨울」, 「들놀이」, 1966년작 「다산성」, 「빛 속의 무덤」, 「염소는 힘이 세다」, 1967년작 「내가 흠친 여름」, 1968년작 「육십년대식」, 1969년작 「야행」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소설이 초기 소설과 다른 변별성을 갖는 것은 작품속 인물이 고향으로 회귀하여 자신을 모색해 보는 과정이 없고, 현실속에서 방황하며, 타락한 사회와 인간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69년 후반에 쓰여진 작품부터는 현실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사회와 개인의 진정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1969년작 「보통여자」, 1977년작 「강변부인」, 「서울의 달빛 0장」에서는 자본으로 황폐해진 인간의 정신이 얼마까지 처참할 수 있는가를 타락한 성문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1972년작 「그와 나」, 1979년작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 1980년작 「먼지의 방」에서의 인물은 부조리한 삶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삶’을 실천하는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본문에 인용되는 김승옥의 소설 텍스트<sup>47)</sup>는 『김승옥 소설 전집』 1~4권(문학동네, 1995)를 중심으로 한다. 이 전집은 작가의 서문이 있고, 그동안 발표되지 않던 미완 작품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의 발표연도 또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서 기존의 선집들에 비해 우수하다. 또한 김승옥이 1960년대에 주로 작품 활동을 했고, 그 당시의 표기법과 지금을 비교하였을 때 별반 다를 것이 없기에 이를 기본 텍스트로 선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

47) 본문에 인용된 텍스트는 모두 전집에 의거하고, 전집의 권수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 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기 모색

### 1. 윤리의 위기

김승옥의 소설을 읽다보면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작품 속에 ‘죽음, 자살, 단절, 위악, 자기세계, 욕망, 침묵, 고독, 환상, 권태’ 등의 단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김승옥의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기 세계’ 구축은 혼란한 사회에서 자아가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므로, ‘자기 세계’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알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작품 속 인물들이 ‘자기 세계’를 추구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초기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소설에서 인물의 행동방식은 ‘윤리의 위기’가 개인에게 내면화될 때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양상을 다양하게 포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김승옥이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속악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실에 순응해서 살겠다면 ‘윤리의 위기’와 ‘가치의 혼란’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기서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 갈등을 토해내는 방법으로 소설을 쓸 필요도 없다. 김승옥에게 중요한 것은 윤리의 위기가 빚어내는 인간생활의 난맥상을 포착함으로써 개인의 윤리적 삶과 자기 보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승옥은 개인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을 소설의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옥은 ‘윤리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을 당대 현실에서 찾고 있다.

1960년대 초반의 서울은 모두들 너무 가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6·25의 상처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고, 서울은 이북피난민들과 무작정 상경한 이들까지 거느리고 새로운 도시로 출발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생존만이 절대가치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덕적 가치도 양보해야하는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sup>48)</sup>

지금 우리나라엔 질서가 없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런 의견들은 사실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아무리 현대 전세계의 특징이라고 할지라도 무서운 현상입니다. 작가로서의 저는...(중략)...우선 질서를 만들 필요를 절감합니다.<sup>49)</sup>

‘윤리의 위기’는 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한 군사 정권은 근대화를 내세우면서 일련의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물질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었다. 그것은 자립경제의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공업화와 동일시하는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있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sup>50)</sup> 즉 “본격적으로 천민자본주의와 결합된 군사문화”<sup>51)</sup>가 시작된 시대가 바로 1960년대였다. 60년대 이후 본격화된 외자와 정부주도의 자본공급에 의한 외형적 경

48) 김승옥, 「이제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다」, 『싫을 때는 싫다고 하라』, (자유문학사, 1986), pp. 12~13.

49) 김승옥, 「동인문학상 수상소감」, 『뜨거운 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pp. 151~152.

50)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새길, 1991), p. 173.

51)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p. 139.

제 성장 정책은 에너지원이 석유로 대체되고, 외국농산물이 수입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유치와 외국차관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는 수출산업은 산업육성에서 투자재원의 외자의존으로 외채의 누적, 농업·공업 피폐화를 통한 민중생활의 파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존만이 절대가치였고, 생존을 위해 도덕적 가치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승옥 초기 소설에서 ‘윤리의 위기’는 가족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현상을 보인다. ‘윤리의 위기’는 실제 작품에서 ‘가치의 부재’, ‘질서의 부재’로 드러나는데, 가족에서 질서를 책임질 아버지가 부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은 혼란을 겪게 된다. 김승옥 소설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불안, 자살은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작품속에 아버지의 존재가 있더라도 그 모습은 매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가족 내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거나, ‘돈’이면 무엇이든 하는 속물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자아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뿐이며, 자기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 자아는 모방할 만한 대리적 아버지를 찾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 형, 누나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어느 누구도 혼란한 자아를 이끌어 줄 ‘아버지’가 되지 못하며, 자아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거나, 부적응자로 남게 된다. 이것이 심화되면 자살을 택하거나 공동체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생존방식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럼 개별 작품을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생명연습」은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서술되고 있는데, 대학원생인 현재의 나와 나의 유년시절의 회상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인공인 나의 유년시절은 ‘절망’ 그 자체이다. 실제 작품 속에서도 ‘절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절망. 풀 수 없는 오해들. 다스릴 수 없는 기만들. 그렇다고 장난꾸러기 같은 미래를 뻔히 내다보면서 눈감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절망. 절망. 누나와 나는 그 다음날 저녁, 등대가 있는 낭떠러지에서 밤과 파도가 으르렁대는 해변으로 형을 떠밀었다. (1권, p. 43)

‘나’의 유년시절 가족의 모습은 매우 절망적이다. 전쟁으로 인해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여 번 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외간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형은 어머니의 부도덕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고, 이에 ‘나’와 누나에게 어머니를 죽이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누나는 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해하려는 형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몹시 큰 충격이었고, 어른이 된 현재의 나에게도 여전히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이며, 구성원들간에는 사랑과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개인이 윤리와 가치관에 혼란을 겪을 때에도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가족은 서로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가족간의 와해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아버지란 존재는 한 인간을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가 부재하게 되면 자아는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가치판단의 기준을 상실하게 되고, 공동체 속에 동화되지도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작품 속에서도 가족의 와해가 아버지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어머니는 영혼을 사러 다니는 마녀와 같다고 형은 경계하고 있었고 한편, 형은 빈틈을 쉬지 않고 노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은 나와 누나의 직관 속에서 보면, 분명히 아버지의 사망 후에 비롯된 것이었고 비록 은근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얼마나 끈덕진 것이 있었던지 이것의 어떤 해결 없이는 새로운 생활-새롭다고 한들, 남들은 별 생각 없이 예사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었다.(1권, p. 41)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바로 ‘어머니’이다. 그러나 「생명연습」의 어머니는 밀수선 선장, 세관 관리 그리고 헌병문관을 차례로 집에 끌어들이며 외도만을 일삼을 뿐이며, 그로 인해 형에게 구타를 당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피난지에서 돌아온 이후 어머니의 외도는 더 이상 없었지만 형에게는 과거의 어머니의 외도가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였던 것이다. 어머니는 형에게 있어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인물이며, 가치관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인물이다. 그래서 형은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로 나와 누나의 행동이다. 누나는 어머니의 외도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고자 헤매이는 어머니의 모습”(p. 42)이라고 의식을 조작해 이를 합리화함으로써 어머니와 형의 오해를 풀어보려 노력한다. 나는 그런 누나를 유일한 동맹이라 생각하고 내가 어린 날을 그래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누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있어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 준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형도 아닌 ‘누나’였다. 어둡고 암울한 어린 시절 누나가 있었기에 ‘나’는 언어와 사회의 법칙을 알았고 자신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형’에게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 잡아 줄만한 주변인물이 없다. 그렇다고 누나처럼 자신의 의식을 조작해 가면서 살아가고 싶지도 않다. 결국 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아버지의 부재

는 가족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불안한 자아는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작품 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하더라도 개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소설은 「건」과 「환상수첩」이다. 그러나 작품 속의 아버지 모습은 돈 몇 푼에 남들이 꺼리는 천한 일을 하거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고 연두색에만 집착하는 등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건」은 성인세계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심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나’는 빨치산들의 습격으로 황폐해진 시가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특히 미영이와의 추억이 담긴 방위대 본부가 불타버린 것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와중에 동네 반장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빨갱이 시체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고, 아버지는 뜻밖에도 선선히 승낙한다. ‘나’는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심장의 고동이 멈춘 듯한”(p. 57)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본 빨갱이의 시체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처럼 “탱크를 닮은 괴물”(p. 53)이 아니라 “만취되어 길가에 쓰러진 한 거지의 꼬락서니”(p. 53)와도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시체를 아버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게다가 동네 어른들은 시체를 “이태 만에 한 구경거리”(p. 54)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린 ‘나’는 어른들의 비정하고 황폐한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 이는 ‘나’에게 방위대 본부가 불타버린 그 이상의 실망감이었다.<sup>52)</sup> 게다가 형은 하루아침에 시가지가 불

---

52) 실제 작품에서는 “안절 때문에 새빨간 아버지의 눈에 그림자처럼 살짝 스치고 가던 미소, 아아, 나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한숨이 나오도록 유쾌했다. 아버지가 시체를 다루러 가는 모습이 몹시 우울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약간 하고 있던 나는 무거운 책임을 벗은 듯한 기분이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건」, 앞의 책, p. 58.) 김승옥 소설을 보면 지나

탓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무전여행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불평만 하고 있고, 친구들과 윤희 누나를 범할 음모를 꾸민다. 「건」에서의 아버지와 형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혼란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절대적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내가 유일하게 기댈 곳은 ‘윤희 누나’였으나, 그녀는 나와는 다른 남이고<sup>53)</sup> 자신을 데려가 감싸주기를 속으로 바랬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른들처럼 주변에 무더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상수첩」에서의 아버지 모습도 심약하고 무능력한 모습 그 자체이다.

오십. 남의 아버지들 같으면 국장님도 되고 영감님도 될 나이지만 생활력은 조금치도 없었다. 그렇다고 신경질도 피우는 법 없이 마치 남의 인생을 공짜로 얻어서 살아주는 것처럼 유유했다. 그러나 때때로 술이 들어가는 날이면, 나와 지금은 고등학교 삼학년이 다니는 내 동생을 꿰어앉혀놓고 “이놈들아, 내가 왜 너희들을 만든 줄 아느냐? 하, 이놈들, 외로워서 그랬다.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뭐 너희들, 이 알뜰한 세상 구경시키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 그저 심심하고 외로워서…… 암. 날 좀 이해해줄 놈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지. 그나저나 하여튼 미안하다. 고생시켜서 미안해. 미안하니까, 예또, 가서 공부해.” (2권, p. 26)

주인공 ‘나’는 시골에서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한 대학생이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공간은 내가 견디기에 너무나 힘든 곳이었다. 환상과 현실과의 거리조차 잊어버려서 아무 것도 구별해 낼 수가 없게 되었고, 사

---

칠 정도로 인물들의 웃음이 드러나 있는데-「생명연습」의 한교수, 어머니, 형, 「건」에서의 아버지와 형 등- 이는 행복감이나 유쾌함에서 오는 웃음이 아니라 자조 섞인 웃음, 조소 및 모든 것에 대한 실망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53) 작품 초반에 “우리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딴 남인 것이었다.” (p. 50)라는 설명은 결국 자신을 지탱해 줄만한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람을 미워하는 법만 배우고 말았다. 이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향해 버리기로 결심한다. ‘나’의 고향은 누구나 생각하듯 마음의 안식처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다. 어머니는 큰 보통이를 들고 시골의 장날을 찾아 돌아다니기에 바쁘고, 아버지는 하구한 날 집안에서 화초나 가꾸고 사군자나 끄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생활력이라고는 조금치도 없고, 술을 먹은 날이면 자식들을 불러 외롭다고 한탄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주체가 어떤 대상을 원할 때, 그 사이에는 매개자가 있고, 주체의 욕망은 그 매개자의 욕망을 모방하여 이루어진다”<sup>54)</sup>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삼각구조”인데, “주체와 매개자의 거리가 멀 때는 심리적 안정을 느끼지만 그 거리가 좁혀지면 두 주체는 부러움과 질투 등의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sup>55)</sup>고 한다. 연두색에 집착하는 무능력한 아버지는 나에게 더 이상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나’는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만한 대상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일상 생활에 돌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기도 하나, 운수의 죽음으로 인해 삶의 무상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게 된다.

초기 작품 외에도 「무진기행」을 비롯한 많은 작품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드러나며, 이로 인해 자아는 불안하고 불행한 내면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실제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 살까지 아버지 쪽 사람들의 얼굴은 구경도 못하고 외갓집에서 자라났다”<sup>56)</sup>는 작가의 수기를 통해서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54) 르네 지라르, 앞의 책, p. 9.

55) 르네 지라르, 앞의 책, p. 9.

56) 김승옥, 「어린 시절의 두 가지 이야기」, 『싫을 때는 싫다고 하라』, (자유문화사, 1986), p. 44.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가 8살 때 부친이 사망하였기에 ‘아버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작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결국 자아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주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심한 혼란을 겪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대체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된다. 하지만 그 대상-어머니, 형, 누나-조차도 타락하거나 완전한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거나 일상에 젖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2. 자기 세계 추구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둡고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모색을 하는데, 그 방편의 하나가 ‘자기 세계’의 구축이다. 지금까지 평론가들은 ‘자기 세계’ 구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을 하였다. 김현은 ‘자기 세계’란 “자기 환경과 상황의 의미를 캐어내려는 시도이며,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이란 자기 상황을 수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극복하려는 인간을 의미한다”<sup>57)</sup>고 하였다. 진정석은 자기 세계를 “절대화된 내면성”으로 보면서, “극기를 주어진 상황에 수락하되 거기에 의식 내부의 섬세한 조작을 가해 자기 세계로 만드는 행위”<sup>58)</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김주연은 “인물 상호간의 적의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인간관계”<sup>59)</sup>로, 정과리는 “자기 세계는 타인과의 철저한 배타 감정을 의미한다”<sup>60)</sup>고 규정하고 있

---

57) 김현, 앞의 글, pp. 383~402.

58) 진정석, 앞의 글, p. 416.

59) 김주연, 「60년대 소설가 발견」,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p. 271.

다. 이러한 논의는 자기 세계가 혼란한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한 한 방안이라는 점과 기존의 가치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인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추구해 나가는 ‘자기 세계’는 초기작 「생명연습」에서부터 후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기 세계’의 추구 양상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외부 세계와 단절을 피하면서 형성한 현실 도피적 성격의 ‘자기 세계’이며, 둘째는 현실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한 ‘자기 세계’이다. 여기서 전자는 폐쇄적 성격이 강하며, 후자는 타자 억압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sup>61)</sup>

### 1) 폐쇄적 ‘자기 세계’

폐쇄적 ‘자기 세계’는 현실의 모습에 환멸을 느낀 자아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피하면서 형성한 ‘자기 세계’이다. 이 때의 ‘자기 세계’는 인물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현실과의 상호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오래 유지 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폐쇄적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은 「생명연습」의 나와 누나<sup>62)</sup>, 「환상수첩」의 정우 아버지, 정우<sup>63)</sup>, 윤수, 형기, 「역사」에서

---

60) 정과리, 앞의 글, p. 285.

61) 박진영 또한 자신의 논문에서 ‘김승옥 소설의 자기세계가 타자 억압적인 절대성 또는 자기 내면 지향의 폐쇄성, 이 둘의 양 극단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박진영, 「김승옥 소설의 주체구성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0, p. 35)

62) 누나는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해 형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패륜을 저지른다. 이

나와 서씨 등이 있다.

「생명연습」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가족이 와해되는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는 부재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어머니조차도 외도를 일삼는 등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폐병에 걸린 나의 형은 그런 어머니를 감시하고, 어머니가 세 번째 남자를 데리고 오던 날 구타를 하는 등 패륜적인 모습을 보이며, 심지어 어머니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어린 나는 항상 다락방에서 무언가 “벌레처럼 끊임없이 부스럭거리는” 형을 “지옥을 지키는 마귀”(p. 32)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왜곡된 가족의 모습에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나와 누나이다. 나와 누나는 평안과 생명을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왕국에서 우리는 그렇게도 항상 땀이 흐르고 기진맥진 하였다. 그러나 한 오라기의 죄도 거기에는 섞여 있지 않는 것이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평안했고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우리가 꾸며놓은 왕국에는 항상 끈끈한 소금기가 있고 사그락대는 나뭇잎이 있고 머리칼을 나부끼는 바람이 있고 때때로 따가운 빛을 쏘는 태양이 떴다. …(중략)… 누나와 나는 얼마나 안타깝게 어느 화사한 왕국의 신기루를 찾아 헤매었던 것일까!(1권, p. 40)

나와 누나가 가진 왕국은 “끈끈한 소금기”, “사그락대는 나뭇잎”, 신선한 “바람”, 따가운 “태양” 등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이

---

점에서 타자 억압적 ‘자기 세계’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누나의 ‘자기 세계’는 의식의 조작-어머니의 외도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것이라고 어머니 행위를 합리화시킨 것-을 통해 형성한 허구적인 것이기에 폐쇄적 ‘자기 세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63) 정우는 ‘자기 세계’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드러난다. 서울에서의 정우의 모습은 타자 억압적이고 절대성을 띤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인 반면, 고향에서의 정우는 자기 내면지향의 폐쇄성을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들은 이 공간을 통해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생명을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자신들을 지탱해 줄 가족의 모습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공간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자신만의 내면의 공간, 즉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이들에게 그 공간을 파괴하려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영리한” 누나는 형과 어머니의 오해를 풀어 보려고 노력한다. 어머니가 집으로 끌어들이는 남자들의 외모가 아버지의 모습과 일치했으며, 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한 어머니 나름의 노력이라고 하는 의식의 조작을 통해 가족간의 오해와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형은 누나의 말을 일종의 ‘극기’ 일 뿐이라며 무시해 버린다. 이제 누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형을 죽음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것이었다.

「환상수첩」에서 정우 아버지, 정우, 윤수, 형기 등도 「생명연습」의 누나와 같은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들이다. 정우의 아버지는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생활력이라고는 전혀 없고, 삶에 대한 애착도 상실한 인물이다. 이러한 그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연두색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인다. “푸르거나 기껏 옥색이기만 한 먼 하늘가에서 연두색을 가려낼 정도” (p. 26)로 연두색에 집착하며, 심지어 아내마저도 연두색 저고리를 입어야 했다. 그의 연두색에 대한 집착은 현실에서 가질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욕망의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이승훈은 연두색을 “성장하는 식물과도 관련이 되지만, 동물적 유기체의 세계”<sup>64)</sup>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연두색은 모든 생명력을

64) 이승훈은 초록색을 차가운 느낌의 색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을 매개하는 전환적인 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초록색은 성장하는 식물과도 관련이 되지만, 동물적 유기체의 세계와 해체나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검푸른 남빛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김승옥 소설에서는

상징하는 것이며, 정우 아버지가 연두색에 집착하는 것은 무기력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서울에서의 생활에 환멸을 느껴 하향을 한 주인공 정우, 자학이 심하고 스스로 파멸시키는 생활을 하는 윤수 또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졌었던 인물이다. 이 둘은 모두 일상 생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심한 환멸을 느껴 방황하는 인물이다. 정우는 대학 시절 논쟁에서 누가 이겼냐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이런 논쟁에서 승리하는 교수만이 실력파라고 인정받은 현실에 심한 환멸을 느낀다. 또한 자신의 애인을 서슴지 않고 범한 오영빈을 보면서, 더 이상 “버티어낼 수 없는 생활”(p. 25)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한다. 고향은 “쉽사리 식혀 줄 만한 일이라곤 없을 듯”(p. 25)한 곳이지만 그래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함께 한 벗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정우는 그러한 벗을 통해 서울에서 훼손당한 ‘자기 세계’를 찾아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와서 본 벗들의 모습은 자신이 서울에서 환멸을 느꼈듯이 “무엇엔가 짓눌려버린 표정”(p. 27)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크게 실망하게 된다. 윤수 또한 정우와 마찬가지로 고향 순천이 서울과 같이 타락해 가고 있음에 절망하여 자학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정우와 윤수의 여행이다. 정우는 여행을 통해 혼란한 마음을 정리하고 오라는 부모님의 설득으로 윤수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된다. 이 둘은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곡예단원인 이씨와 미아를 만난다. 이씨는 삼십년 동안 서커스를 해 온 사람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미아 또한 곡예단이 운영난 때문에 해체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인물이다. 정우와 윤수는 열악한 현실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

‘성장’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p. 284.)

열심히 사는 이씨와 미아를 보면서, 현실에는 위악과 위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윤수와 정우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고, 일상 생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충동도 잠시 뿐 수영이 동생 진영이가 동네깡패에게 윤간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 또 다시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윤수는 수영이 자신의 동생이 윤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날 저녁 깡패를 찾아갔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일로 인해 정우도 충격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 생각하여 형기의 자살을 돕고 자신도 자살해 버린다.

「역사」에서 나와 서씨도 폐쇄적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이다. 주인공 ‘나’는 무질서하고 퇴폐적인 생활만이 존재하는 창신동 빈민가와 규칙적인 생활만이 존재하는 양옥집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어느 쪽의 삶이 더 알찬 삶인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 양옥집은 할아버지를 통해 질서가 유지되고,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존재하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정해준 일정에 맞추어 움직일 뿐, 개인의 자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양옥집의 생활을 “빈 껌데기의 생활”(p. 86)이라고 생각한다.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의 삶은 열심히 일해도 항상 그 자리인 “끝없는 공전” 같은 삶이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정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다. 그러하기에 ‘나’는 병원같이 깨끗한 양옥집 보다는 창신동 빈민가의 삶이 더 알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제 ‘나’는 양옥집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 세계’를 형성하려 한다. 그리고 잘못된 양옥집의 생활을 바꾸어 놓기 위해 양옥집 식구들이 먹는 물에 흥분제를 탄다. 이러한 ‘나’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질서만 강조하는 사회 체제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나’가 이런 행위를 하기까지는 창신동 빈민가에서 만난 서씨의 영향이 컸다. 서씨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力士)이다. 그의 힘은 과거에는 그의 집안을 평안하게도,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공사장에서 남보다 약간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는 기능”(p. 84) 밖에 하지 못한다. 이는 개인의 고유한 능력이 교환 가치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씨는 자신의 능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약간 더 많은 보수를 거절한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한밤 중 동대문 성벽의 돌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곤 한다. 이것이 바로 서씨의 ‘자기 세계’이다. 그는 개인의 능력을 교환 가치로 여기는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인물인 것이다.

## 2) 타자 억압적 ‘자기 세계’

타자 억압적 ‘자기 세계’는 소설 속 인물이 타락한 현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타자의 욕망을 억압하면서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은 「생명연습」의 한교수, 영수, 「건」의 나, 「환상수첩」의 영빈, 수영, 「역사」의 할아버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생명연습」의 한교수와 영수를 보자. 한교수는 도쿄로 유학을 온 학우들 간에 “국화, 단(但), 남성”이란 별명으로 불려질 정도로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애인인 정순이 자신이 피하고 있는 런던 유학을 포기하라고 하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정순의 육체를 범해버리고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유학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교수가 사랑하는 여자를 짓밟으며 “옥드포드제”의 튼튼한 성벽같은 ‘자기 세계’를 가진 이라면, 영수는 “다방 지하실” 같은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이다. 과거회상

의 종결어미인 ‘하더라’ 체를 즐겨 쓰고, 두음법칙이 어감의 감손을 가져온다고 하여 ‘연민’을 굳이 ‘련민’으로 발음하는 친구이다. 또한 시를 쓴다는 명분 아래 대단히 진지한 태도로 여자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그는 “도덕·자연 하는 것도 위악(偽惡)의 품목에 참석할 수 있다”(p. 27)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영수가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을 짓밟거나 타인과는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실패하고 군대에 갈까 자살을 할까 고민하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건>에서는 어린 ‘나’가 성인세계의 위악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나’는 어른들이 빨갱이 시체를 보고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침을 뱉는 행동을 따라한다. 그리고 시체를 묻으러 가는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의 호흡을 흉내 내고, 관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모방하며, 더 나아가 형들이 윤희 누나를 윤간하려는 음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주인공 ‘나’는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개 위에 먹칠을 해야 하는 것”(p. 63), 이것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타락한 사회에서 ‘자기 세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짓밟는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환상수첩」에서는 청년기의 인물이 위악을 통해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영빈과 임수영이 이에 해당한다. 영빈은 서울에서의 대학친구로 주인공 ‘나’가 하향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자살하기 좋은 곳을 알려주는 엉뚱한 친구이다. 선애가 임신일지도 모른다고 했을 때도 키니네를 한 움큼 사주며, 적당히 먹여 태아를 떨어뜨리라고 충고하는 그, 이후 약해진 선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자신의 여자와 선

애를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선애는 자살을 하고 만다. 현실은 타인의 욕망을 짓밟아야 살아갈 수 있는 곳, 환멸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주인공 ‘나’는 영빈을 통해 실감하게 되며, 영빈도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 위악적인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주인공 ‘나’의 고향친구인 임수영 또한 이러한 ‘자기 세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폐침윤 2기 진단을 받고 고향에 내려온 수영은 자신의 약값을 벌기 위해 윤수를 모델로 하여 춘화를 그려 그것을 팔아서 생활하는 인물이다. 병든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인륜마저도 무시하고, 동생 진영이 동네깡패에게 강간을 당했음에도 “처녀막이 감기에 걸렸나” 하며 남의 스캔들 얘기하듯 하는 그이다. 그가 정우의 수기 마지막에도 밝히고 있듯이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수영의 ‘자기 세계’인 것이다.

「역사」에서 질서유지를 부르짖는 양옥집 할아버지 또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이다. 할아버지는 주인공 ‘나’가 이사온 날 6·25사변이 남기고 간 것은 가정의 파괴라고 얘기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가풍을 만들어가야 한다”(p. 73)고 말한다. 그래서 양옥집 식구들은 할아버지가 만든 가풍, 즉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p. 74)를 지키며 생활한다. 양옥집 식구들에게는 개인의 자유가 없고, 할아버지가 만든 공동체 생활만 있을 뿐이다. 이에 ‘나’는 견딜 수 없는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게 된다.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규칙만을 중요시하는 할아버지 또한 타자 억압적인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인 것이다.

### 3. 자기 세계 추구의 좌절

김승옥 소설에서 초기작품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는 윤리의 위기, 가

치 상실 등 모든 것이 부재하는 상황속에서 자아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외부 세계와 단절하며 폐쇄적인 ‘자기 세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있는가하면 타자를 억압하며 무관심과 환멸만이 존재하는 현실에 위악적 ‘자기 세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있다. 작가는 이 두 가지의 ‘자기 세계’ 중 어느 한 쪽도 긍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니 아무도 틀려 있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자신있는 생각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다.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 젊은이가 보았다는 두 가지 생활이 사실 내 바로 곁에 공존하고 있다고 하면 나도 좀 명칭해져버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느낌뿐이었다.(1권, p. 90)

위는 「역사」의 마지막부분이다. 현실은 규칙만 존재할 뿐 그 곳에서는 자아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공간이다. 견딜 수 없는 권태와 혐오증을 느끼는 ‘나’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양옥집 식구들의 물에 흥분제를 타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주인공의 행위는 할아버지가 세워 놓은 질서를 깨뜨리지 못한다. 김승옥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환상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주인공의 행위가 자신의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로 구체화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환상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아는 ‘자기 세계’를 찾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되면 자살을 하거나 현실에 순응하여 사는 모습을 보인다.

김승옥 소설에서는 유독 등장인물의 자살이 많이 보인다. 「생명연습」에서 형의 자살, 「환상수첩」의 선애, 정우, 형기의 자살과 윤수와 서커스단원인 이씨의 죽음, 뒷장에서 이어질 「무진기행」의 창녀의 자살, 「서울 1964년 겨울」에서의 아저씨의 죽음 등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뒤르켐은 자살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로 분류한다. 이기적 자살은 “한 개인이 사회 내로 올바르게 통합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집단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어 집단이 목적이나 정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 될 때 발생”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적 위치가 급격히 변화하여 그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경우의 결과로서 나타난다.”<sup>65)</sup> 김승옥 소설에 나타나는 자살은 대부분 아노미적 자살이다.

(1)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였다. 판자문을 빼걱거리며 열고 물에 흠뻑 젖은 형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우리의 눈동자는 확대된 채 얼어 붙어버렸다. 형은 단 한마디, 흐흐 귀여운 것들, 해놓고 다락방으로 빼걱거리며 올라갔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등대가 있는 그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은 것이었다. 나와 누나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번쩍이고 있었다.(1권, p. 43)

(2) 우리는 파도가 해변의 바위들에 부딪쳐 내는 무서운 소리를 들었다. 생명이 물러가는 소리가 있다면, 아아, 저 파도 소리와 흡사하리라. 나의 시야는 흐려지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때 나의 뼈를 끌어내는 듯한 파도 소리에 섞여서 나는 형기가 마침내 미쳐서 설새없이 무어라고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형기와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다.…(중략)…그리고 곧장 이 수기를 썼던 모양이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며칠 후 그는 자살해버렸다.(2권, p. 76)

(1)은 「생명연습」의 일부분으로 형의 자살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형의 자살은 가족 공동체 사이의 결속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타적 자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노미적 자살로 볼 수도 있다.

65) 뒤르켐, 『자살론/사회분업론』, 임희섭 역, (삼성출판사, 1990), pp. 249~250.

(2)는 「환상수첩」에서 형기의 자살을 돕고 자신도 자살해 버리는 정우의 죽음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고향에 돌아온 정우에게 있어 고향 친구들과의 생활은 서울에서 영빈과의 생활과 다름없었고, 고향으로 도피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러다 부모님의 권유로 윤수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곳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서커스 단원 이씨와 미아를 통해 생활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수영의 동생 진영이 깡패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과 이에 무관심한 수영으로 인해 좌절되고 만다. ‘어설피 미덕’을 보인 윤수는 죽음을 당했고, 정우는 “지상에 죄가 있을 리 없다”(p. 75)는 비관적 세계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택하게 된다. 환멸만 가득찬 서울에서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던 정우의 자살 또한 아노미적 자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자살은 자아의 욕망의 좌절과 비극적 세계인식에서 기인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는데, 작가가 이를 통해 보여주고 한 것은 「환상수첩」의 끝부분에 수영이의 짧은 글로 나타나 있다. “산다는 것, 우선 살아내야 한다는 것, 과연 그것이 미덕이라고까지는 애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야 출발하는 것이다.”(p. 77) 라는 수영의 글은 1964년작인 「무진기행」을 포함한 이후에 작품경향의 변모를 예고하는 것이다. 사소한 것의 집착, 인물들의 끊임없는 방황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 한다는 자아의 삶에 대한 노력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자아의 모습은 작품에서 소설의 서사성을 무시하고, 자아의 생각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드러난 작품이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와 「확인해 본 열 다섯 개의 고정관념」이다.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63년 작품으로 김승옥 소설 중에서 가장 난해한 소설 중에 하나이다. 다른 소설과는 달리 서사성이 결여되어 있고, ‘축전’ ‘프로필’ ‘갈대가 들려준 이야기’ ‘누이의 결혼’ ‘일지초’ ‘다시 축전’이란 제목의 짝막한 글들이 소개되고 있다. ‘축전’에서는 감정의 뉘앙스를 없애버리고 ‘축 순산(順産)’이라는 형식적인 문자만을 남겨 놓는 부호를 조롱하고 있으며, ‘프로필’에서는 자칭 소설가라는 작자에 대한 조롱이 나타난다. 그는 성실한 데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과거를 조작하여 얘기하는 등 진실한 데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나는 신이 있다면 그에게 “심각한 체라도 하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다고” (p. 100) 말씀하실 거라 생각한다. ‘갈대가 들려준 이야기’에서는 도시로 간 누이가 침묵을 배워온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누이의 결혼’에서는 고향으로부터 온 누이의 결혼소식과 어린애를 낳았다는 소식이 나타나 있으며, ‘일지초’에서는 주인공 ‘나’가 도시로 와서 느낀 것이 서사관계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나열되어 있다.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正)

반(反)

그러면 다시

정(正) - 내 감정의 변증법

경계하면서 사랑하는 체, 시기하며 친한 체, 기뻐하며 슬퍼해주는 체, 저는 너그럽습니다, 라고 표시하기 위하여 웃으려는 저 입술의 비뚤어져 가는 저 선이여. ‘모나리자’ 같은 선생님, 만수무강하십쇼. (1권, pp. 108~109)

주인공 ‘나’의 눈에 비친 도시의 모습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세계관에

이르지 못하고, “너와 나의 의견만이 존재” 하는 공간이며, “사랑하는 체, 친한 체, 슬퍼해 주는 체” 하는 가식적 행동만이 난무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나는 도시에 가서 침묵을 배워왔던 누이가, 도시에서 조리에 맞지 않는 감정의 기교만을 배운 자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도시에서 진실은 없고 감정의 기교만을 배운 자신에 대한 심한 환멸이 소설의 서사성을 파괴하는 양상으로 드러난 소설이다.

「확인해 본 열다섯 개의 고정관념」 또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아의 모습을 표층에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활해 오면서 터득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의 기교만 존재하고 거짓만 존재하는 사회에 대한 은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수단이 흔히 목적을 배반한다” (p. 114)는 것, “전쟁이 꼭 한 번만 일어나면 세계엔 평화가 온다는 생각” (p. 116),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해명은 하지 않는 게 정직하다는 생각” (p. 116), “정직해보고 싶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생각” (p. 120), “괴로워하며 ‘사이’에 위치하는 게 최선의 태도라는 생각” (p. 121) 등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다. 나에게 비친 세계의 모습은 수단만이 있고, 정직할 수 없고, 믿음조차 없는 위선만 존재하는 그런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는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자아가 인식한 세계에 대한 비관적 인식의 반영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와 「확인해 본 열다섯개의 고정관념」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 자아가 현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무진기행」은 현실에 무력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보여주고 있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그의 동거녀가 죽고 “뺨 좋고 돈 많은” 과부와 결혼했으며, 지금은 큰 제약회사 전무가 될 사람이다. 그는 전무가 되기

전 잠시 쉬고 오라는 아내의 말에 의하여 ‘무진’을 찾는다. 그에게 있어 ‘무진’은 환멸로 지새웠던 젊은 날의 쓰라린 과거가 그대로 녹아 있는 공간이며, 자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윤희중은 무진에서 음악교사 하인숙을 만나게 된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이상한 우울에 빠지며”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동일시되는 하인숙에게로 향하게 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무진을 떠나게 되면 사라질 것을 알고 있는 현재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내면 안에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는 다음날 어머니의 산소에서 서울의 생활을 떠올리며 “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p. 143) 하는 것과,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술집 여자를 “아프긴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 (p. 145)지는 것으로 드러난다. 윤희중은 하인숙을 무진에서 끌어내어 서울로 탈출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으로 받아 안기 위해서는 애써 구축해 놓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려야하기 때문이다. 윤희중이 잠에서 깨어 인숙을 부르며 “이유를 집어낼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안” (p. 151)을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아내의 전보는 나를 현실로 끌어낸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기로 약속한다. 전보여, 새끼손가락을 내밀어라. 나는 거기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한다. 우리는 약속했다. (중략)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1권, p. 152)

윤희중의 내면적 갈등은 급히 상경해 달라는 아내의 전보로 인해 끝나게 된다. 전보는 윤희중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고, 이 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는 속물화된 사회를 혐오하지만 사회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안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자신도, 타인도 훼손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윤희중은 일말의 양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는 자신이 속물적 인간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무진기행」은 현실에 환멸을 느끼지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자아를 그리고 있으며, 이는 후기 소설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의 모습을 예견하는 것이다. 자아는 현실에 순응하여 살지만 점점 더 훼손되어 가는 사회를 통해 절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황폐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심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60년대 경제개발정책으로 사람들은 극심한 경제난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생존가치였다. 생존을 위해서 도덕적 가치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김승옥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양상을 소설로 형상화시켰다. 그의 소설에서는 ‘윤리의 위기’로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윤리의 위기’란 가치의 부재, 질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윤리의 위기’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와해시켰고, 자아가 살아가는데 있어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켰다. 결국 자아는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세계’이다. 김승옥 소설속의 인물은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 하나는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폐쇄

적인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를 억압하고 형성하는 ‘자기 세계’이다. 그러나 작가는 ‘자기 세계’ 중 어느 양상도 긍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아의 ‘환상’에 지나지 않기에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고, 후자는 타인을 짓밟고 형성한 것이기에 이러한 자아가 모인 사회는 파편화된 사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자아는 절망하여 자살을 선택하거나, 현실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 Ⅲ. 부정적 세계인식과 ‘진정한 삶’의 모색

1960년대는 4·19의 승리로 인해 민중의 힘을 발견한 시대이며, 뒤이어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좌절을 맞본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이때부터 정부주도하에 급속하게 근대화가 추진되기도 하였다. 근대화란, 산업이나 문화 기타 각 방면에 있어서 뒤떨어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진보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전개된 근대화의 양상은 정신적인 면의 성장보다 물질적인 성장만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양태를 띠었다. 산업화가 가져온 물질적인 성장은 한편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부의 축적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물질 기반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성장을 가장 급선무로 여겼다. 이는 자립경제의 기반 구축을 공업화와 동일시하는 기본적인 인식 위에 서 있는 것으로써 무엇보다도 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외형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 계층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빈부의 격차, 계층의 갈등, 농촌의 궁핍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한국인의 삶과 존재 기반이 흔들리면서, 공동체적인 유대감의 파괴와 인간관계의 왜곡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sup>66)</sup> 특히 이 무렵 경제 성장이란 명분 아래 농민과 노동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다. 우리 나라 경제 개발의 주요 전략은 외국자본을 끌어 들이고 국내의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공업화와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공업화의 주요한 밑천이었던 저임금 노동은 불가피하게 저곡가(低穀價) 정책을 수반하였기 때

---

6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288.

문에, 그 결과 광범위한 이농(離農)이 초래되었고, 영세 농민들은 떠돌이  
날품팔이나 공장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sup>67)</sup> 높은 성장률, 그  
리고 산업구조와 공업구조 양 측면에서의 '고도화'가 진전되었지만, 그 외  
양과는 달리 내면은 산업간의 심각한 기형적 발전으로 불균등성이 심화되  
었다. 또한 경제의 '고도성장'은 민중의 생활을 점점 더 자본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경제규모가 외형적으로 커질수록 강박의 정도는 더욱 높아지  
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산업화는 그 상업적 목적을 위해 끝없이 욕망을 창출한다. 사람들이 허  
겁지겁 쫓는 욕망은 실상 이윤 추구가 만들어 낸 가짜 욕망에 불과하며 더  
욱이 욕구의 형태는 점차적으로 특정 사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보드리아  
르의 용어를 빌리자면 사회적 차이를 두고자 하는 “차이에의 욕구”<sup>68)</sup>로  
바뀌어 감으로써 부를 축적하지 못한 계층은 필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  
었다. 무엇보다도 산업화가 가져온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성장만을 추  
구한 나머지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켰다는 것이다. 우리의 근대화란 정신  
적인 발전이 도외시 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근대화로 파악하는 편파적  
발전이었다. 산업의 발달이 가져온 물질만능주의는 생산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에 의해 삶을 재단하며, 나아가 인간들도 교환가치로 취급하는 사물화  
현상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사회의 기존 가치 체계는 허물어졌으며, 인

67) 김종철, 「산업화와 문학」, 『창작과비평』, 1980 봄, p.80.

불안정 취업자의 규모가 갈수록 증대하여 저임금구조의 고정화를 가져왔다. 실업자는 물론  
이고 불안정 취업자는 임금, 노동조건, 신분보장 등 각각의 측면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경우이므로 소득 규모로 볼 때는 그 대부분의 경우가 하층 노동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총 취업자 중 불안정 취업자는 1963년에 23.9%에서 1980년에는 31%로, 1991년  
에는 43.1%, 99년 상반기 중에는 50%를 넘는 규모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절대적 다수가 생계비에 미달하는 극도의 저임금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은숙, 「한국자본주의 50년과 오늘의 현실」, 관동대 교지, 1999. 10. 25. 참조)

68) 장 보드리아르,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p. 100.

간들의 정신은 날로 황폐해져 갔다.

김승옥은 이러한 1960년대 상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작가는 그 누구보다도 당대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sup>69)</sup> 그가 파악한 60년대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생존 경쟁만이 존재하는 시대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만이 가득한 시대이다. 또한 사회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바로 60년대인 것이다. 그의 후기 소설은 이러한 60년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1. 산업화로 인한 인간소의 심화

김승옥의 초기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공동체의 파괴, 근대화로 인해 비인간화가 두드러진 60년대라는 사회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함께 이에 대한 한 방편으로 ‘자기 세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아는 진정한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나,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물 내면의 갈등은 「생명연습」에서부터 「무진기행」에 이르기까지 두드러지고, 그 이후 작품에서는 인물 내면의 갈등보다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정신이 황폐화된 60년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치밀하게 묘사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해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함에 따라 사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소외는 ‘분리(separateness)’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sup>70)</sup>으로

69) 골드만은 당대의 “사상·감정 열망의 총체가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최대치로 형상화시키는 사람은 작가나 철학자”라고 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이들을 “예외적 개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골드만, 앞의 책, p. 197.)

70) 안형관, 『인간과 소외』, (이문출판사, 1995), p. 15.

이는 세계와 인간, 인간과 인간,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등 사이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다. 김승옥 소설에서 보이는 인간소외현상은 개인과 개인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사회집단에서 고립된 채 불안해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산업화·근대화로 인해 메말라져 가는 인간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이 「서울 1964년 겨울」이다. 이는 서울 밤거리의 선술집에서 만난 안과 김, 한 사내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세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고, 공동의 관심사도 없다.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텍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훑으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필력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툰 대어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1권, p. 202)

이는 「서울 1964년 겨울」의 시작부분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쓸쓸하고 삭막한 1960년대 서울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의 선술집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난다.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sup>71)</sup> 아니 전혀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무의미한 말만 주고받는 이들

---

71) 김승옥 작품에서 「서울 1964년 겨울」과 「싸게 사들이기」를 보면 인물들의 이름은 없고 김, 안, 아저씨, K, R 로만 불린다. 이는 60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익명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물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에릭 프롬은 소외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와 타인들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하나의 사물,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서 체험하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결핍되게 마련이고, 자아의식의 결핍은 깊은 불안으로 이행된다”<sup>72)</sup>고 하였다.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자는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파리를 사랑하고, 젊은 여자 아랫배의 조용한 움직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김’, 평화시장에 여덟 번째 가로등은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것, 화신백화점 육층의 창들 중에서 그 중 세 개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다는 것 등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김’의 태도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삶의 의욕도 상실한 채 습관처럼 굳어진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소외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잣집의 장남이면서 대학원생인 ‘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은 서대문 버스정거장에 여자와 어린애, 노인이 몇 명인지,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의 초콜릿 포장지가 몇 장인지 등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아 참, 그렇군요, 난 미처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난 그 중에서 큰미자와 하룻저녁 같이 잤는데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 일수로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뽀즈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되들이 빈 술병에는 돈이 백십원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얘기가 됩니다. 그 사실은 완전히 김형의 소유입니다.” (1권, p. 208)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소한 일이나 사물에 대해 자신만의 ‘소유’라고 말하고 유쾌해 하는 ‘김’과 ‘안’의 모습은 상식적

72) 에릭 프롬, 『건전한 사회』, (범우사, 1977), p. 193.

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매우 낯설고 이상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1960년대 서울이라는 공간을 통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프롬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로서 수량화와 추상화를 들고 이것은 곧장 현대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인 소외현상과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수량화 추상화의 경향은 소유의 생존양식을 낳는다. 프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생존양식이 있다. 하나는 소유요, 다른 하나는 존재다. 전자는 물질, 욕망, 지배에 관계하고, 후자는 생명, 성장, 사랑에 관계한다. 하지만, 문명사는 불행하게도 존재양식에서 소유양식으로 바뀌어왔다”<sup>73)</sup>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소유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오로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진 환경과 살아온 방식이 다른 ‘김’과 ‘안’이지만,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돈’이나 ‘권력’을 갖지 못하고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한 소유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자신만의 ‘소유’를 찾는 것이며, 타인들과의 접촉이 그나마 적은 밤 시간을 이용하여 거리를 헤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대화는 거의 독백에 가까운데, 이는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음탕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강경한 태도로 말했다. “그 얘기는 정말입니다.”

“음탕하지 않다는 것과 정말이라는 것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관계 같은 것은 난 모릅니다. 요컨대……”

“그렇지만 그 동작은 ‘오르내린다’는 것이지 꿈틀거린다는 것은 아니군요.

---

73) 김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p. 87에서 재인용

김형은 아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시구먼.”

우리는 다시 침묵 속으로 떨어지는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개새끼, 그게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 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중략)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또 끊어졌다. 이번엔 침묵이 오래 계속되었다. (1권, pp. 205~206)

‘김’과 ‘안’의 무의미한 대화는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고 이루어지는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독백에 가깝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동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이해시키려 하는 의지도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인 것이다. 이들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 타인에게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김’과 ‘안’의 대화에 ‘사내’가 합류하게 되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처음부터 ‘김’과 ‘안’은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들과 함께 하고자 한 ‘사내’가 별로 유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떤 꿈꿉이속이 있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자신의 술값만 있다면 합류해도 된다는 ‘김’의 말과 함께 이들 세 사람은 좁고 한산한 서울거리를 서성거리게 된다. 사내는 오늘 낮에 아내가 죽었다는 것과 그 시체를 해부용으로 팔아버린 것을 이야기한다. 아내의 죽음 때문에 깊은 상실에 빠져있는 사내에게 ‘김’과 ‘안’이 고작 해줄 수 있는 말은 “네에에” “그거 안되셨군요” (p. 213)라는 의례적인 조의를 표하는 것일 뿐, 속으로는 얼른 그 자리를 빠져 나올 궁리를 하는 것이었다. 또한 ‘사내’가 택시를 잡고 소방차 뒤를 따라가자고 말했을 때에도 ‘안’은 “좀더 재미있게 지내야죠. 돈은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p. 217)라며 사내의 혼란한 마음상태를 이해하려고 하기는커녕 사내가 가진 돈의 잔액에만 신경을 쓸 뿐이다. ‘김’도 역시 화재가 난 상황에서 아내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사내를 위로하기보다는 간판에 불타고 있는 글씨를 보면서 그 간판에 불이 붙는 과정을 자신 혼자만 알고 있기를 바라고 있다. ‘김’과 ‘안’은 사내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동정의 감정 또한 없다. 다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사내의 돈을 같이 써주는 것일 뿐이다. 결국 ‘사내’가 아내의 시체를 팔고 받은 돈을 불 속에 던져버리자 ‘안’과 ‘김’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이유로 사내와의 만남을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사내’는 오늘 밤만 같이 지내달라고 애원한다. ‘김’과 ‘안’은 할 수 없이 ‘사내’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게 된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중략)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중략)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1권, pp. 222~223)

타인이 모르는 자신만의 것을 ‘소유’ 할 수 있는 거리, 자신의 내면에 충실할 수 있는 거리라는 공간은 ‘김’ 과 ‘안’ 에게 있어 ‘여관’ 보다 더 좁게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사내’ 의 부탁으로 인하여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관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김’ 과 ‘사내’ 는 같은 방에 들기를 원했으나, ‘안’ 은 이를 냉정히 거절한다. 숙박계에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꿈도 안 꾸고 잘 잤다”(p. 223)는 이들의 모습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가식과 거짓, 속임수만이 만연되어 있던 속물화된 6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내가 자살할 것이라고 짐작했으면서도 ‘안’ 은 이를 방관했고, 사내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얼른 그 곳을 빠져 나온 ‘김’ 과 ‘안’ 의 행동은 인간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타인에게는 철저하게 냉정하고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여관을 나와 ‘김’ 과 헤어지면서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p. 224)라는 ‘안’ 의 말은 속물화된 60년대 서울에서 무책임을 긍정하며,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일찍 배워버린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라 하겠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주인공들이 본 서울의 모습은 삭막함 그 자체이다. 거리는 네온사인의 불빛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옆으로는 거지들이 었드려 있고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기 위해 웅크리며 뛰어간다. 이는 바로 60년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변화된 서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60년대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였으나, 반면에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 지고, 도덕·윤리적 가치가 무너지는 시기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되고 타인은 외면해 버리기 일쑤였다. 김승옥은 이런 서울의 모습을 그의 작품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더 나아

가 무책임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심리를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다.

「서울 1964년 겨울」이 “산업사회로 치닫는 초기단계의 도시에서 받아되기 시작한 인간소외의 한 극단을 본격적으로 포착한 작품”<sup>74)</sup>이라면, 「차나 한잔」과 「들놀이」는 사회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의 불안한 심리와 거짓된 ‘도회의 어법’ 만이 난무하는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차나 한잔」은 신문에 연재만화를 그리던 만화가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이야기다. 만화가 ‘그’는 신문에서 요 며칠 자신의 연재만화가 빠져 있어 늘 불안하다. 그래도 여전히 그날분의 만화를 그려서 가지고 가면 문화부장은 어느 때와 똑같이 기사 폭주로 인해 만화를 신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생계 수단이 흔들리자 자신이 어찌다가 만화를 그리게 시작되었나 생각해 본다.

이른바 일류 대학을 지망했다가 실패하자, ‘나만 열심히 하면 어느 대학이고 어떠랴’ 하고 들어간 정원미달의 어느 삼류 대학 사회학과를 마치고,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자 어찌다가 떨어진게 정훈(政訓)이었고 정훈에서 어찌다가 맡은 게 군내 신문 편집이었고 그리고 어찌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만화를 그리고 있었고… (중략)...

그야말로 ‘어찌다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기가 지난날 우연 속에서 자신을 맡겨버린 것이 갑자기 역겨워졌다. ‘거지 같은 자식이었다’ 하고 그는 자신을 욕했다.

우연 속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습관을 가르쳐준 게 그놈의 군대였었다. 그런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긴 그것이 평안했어. 적어도 신경쇠약에 걸릴 염려는 없었거든.(1권, pp. 170~171)

---

74) 이승준, 「김승옥론 : 1960년대적 의미에 대하여」, 고려대 석사논문, 1997, pp. 66~68.

‘그’가 만화를 그리게 된 것은 그야말로 ‘어찌다가’였다.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연 속에 자신을 맡기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군대 생활’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지금은 차라리 그 때가 평안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그 때는 최소한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염려는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되는데, 이 때 인간의 노동이 자기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노동이란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발전시키는 실존적 활동으로써 자기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의 노동은 그 생산물이 타인의 것이 되어 버리고, 노동자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인간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sup>75)</sup>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 전체의 결합이 아니라 특수화된 개인들의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이 인간 사이의 유대를 대신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에게 더 이상 유용성을 바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한다.”<sup>76)</sup> 인간마저 교환가치로 취급하고, 집단으로부터 도태된 개인은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며, 1960년대 서울의 모습인 것이다.

그는 신문사의 건물을 돌아보았다. 자기가 여기에 관계를 갖고 있던 그 동안

---

75) 칼 마르크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역, (박종철출판사, 1991), p. 127.  
 ‘노동의 소외’란 주로 노동자와 노동 생산물과의 단절을 말한다. 즉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은 결코 노동자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가 더 많은 부를 생산하며 할수록 오히려 자신은 더 궁핍해진다. 이렇게 하여 노동자는 마침내 노동의 대상으로서의 대상물에도, 생활 수단으로서의 대상물에도 전면적으로 예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악의 상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76) 프리츠 파펜하임,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역, (문예출판사, 1994), p. 86.

타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볼 때에 몇 점 더 놓고 보게 해주던 그 회색빛 괴물을, 이 회색빛 괴물의 덕분으로 그는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자기를 신용해버리게 할 수 있었다. 만일 이 괴물이 없었다면 평생을 두고 설명해도 신용해줄지 말지 모를 사람들로 하여금 말이다.(1권, pp. 186~187)

그리고 나서 그는 상표가 되어버린 몇 사람의 이름들을 생각해보았다. 이름이 신용있는 상표가 되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어설픈 만화가 이 아무개 정도 가지고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좀 곤란하다. 나를 이 신문사가 신용해줄까?(1권, p. 191)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신뢰보다는 ‘신용’이 우선시 된다. 개인의 신용은 그가 속한 기관의 힘과 그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에서 비롯되며, 이를 토대로 개인의 가치가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의 퇴출은 곧 자신의 신용상실을 의미한다. 만화가 ‘그’가 “오늘 중으로 무언가 확실한 걸 붙들어둬야 한다.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순조롭게 연속시켜주는 것을 붙잡아둬야 한다.”(p. 185)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차나 한잔」에서는 인간의 가치마저 자본주의 논리로 파악하는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도회의 어법’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그네들의 말투를 알고 있었다. 저 도회(都會)의 어법을,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어법에 잘 속았었다. 방금 카메라맨이 말한 ‘다음에 좀 봅시다’는, 그 뜻을 따라서 정확히 표기하자면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히 가십시오’이다. 그런데 그들은 ‘좀’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버린다.-(중략)-

그가 해고당한 것을 알리기 전에 문화부장은 먼저 ‘오늘치 만화 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던 그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다. ‘오늘치 만화……’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가 해고당하지 않았음을 알았으

리라. 또는 ‘오늘부터는 그리실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뜻은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치 좀……’ 했던 것이다. 오늘치의 만화를 보아서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던 그 말투.(1권, p. 197)

신문사 문화부장은 이미 ‘그’ 대신에 미국 만화가를 쓰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에게 해고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느 때와 똑같이 “오늘치 만화 좀……” (p. 180)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러오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이번 해고에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설픈 인정이라도 베풀 듯 ‘차나 한잔’ 하자고 말한다. 차를 나누는 것은 더 이상 한국적인 미담이 아니라 일종의 의례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카메라맨이 “다음에 좀 봅시다” (p. 197)라고 말한 것도 얼핏 들으면 그에게 용무가 있어 꼭 보아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지나치며 하는 의례적인 인사일 뿐인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듯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상투적이고 의례적인 도시인들의 말투는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나 애정은 사라지고 형식 그 자체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의 불안 심리는 「들놀이」에서도 나타난다. 영일무역주식회사의 윤영일 사장은 남에게 넉넉히 주는 것은 웃음밖에 없는 “존경할 만한 노랭이”이다. 연말 보너스 대신 정종 한 병씩을 사원들에게 돌리고, 어느 배짱 좋은 사원 하나가 비꼬는 투로 “사장님 덕분에 금년말은 기분 좋게 취해서 지낼 수 있겠습니다” (p. 225)라고 말했을 때 “뿔” 하며 인자한 웃음을 띠면서 다음에 조용히 해고시키는 매정한 인물이기도 하다. 오월 어느 날 사장은 사원들에게 ‘들놀이 초대장’을 보낸다. 사람들은 뜻밖의 초대장에 고무적인 현상이라 기뻐하는 한편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들놀이에 참석해야한다는 것 때문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회사 말단직원인 맹상진군은 남들이 다 받은 초대장을 받지 못한다. 맹군은 들놀이가 따르기에 즐거운 명령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도 정작 초대장을 받지 못하자 매우 불안해한다. 혹시 사장의 처제이면서 비서인 미스 리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 초대장을 나누어준 사환 계집애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해 본다. 하지만 “어린애가 샘내는 꼴” (p. 229)같아 물어 보지도 못하고, 동료인 이군이 미스리의 착오일거라며 위안해도 회사로부터 빼돌림 당한 것 같은 생각만 든다.

빼돌림당한다는 것처럼, 사내새끼들의 사회 속에서, 쓰러린 것은 없다. 결과로서 오는 해악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빼돌림당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써 하로부터 자신에게 배당된 그리고 그것은 마치 고추 하나씩을 배당받았듯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배당된 깊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떨어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1권, p. 236)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는 그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하기에 개인은 끊임없이 사회집단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여기서 밀려났을 때 “깊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소외감이 드는 것이다. 맹군이나 이군에게 있어 들놀이는 놀이의 성격을 벗어나 ‘귀찮은’ 것에 불과함에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끝내 맹군은 들놀이에 가지 않았고, 이군 또한 맹군을 위해 같이 있기로 했지만, 바둑을 두는 내내 두 사람의 신경은 온통 들놀이에 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 요구에 수긍하지 않을 때는 도태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2.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정신의 황폐화

「서울 1964년 겨울」, 「차나 한잔」, 「들놀이」가 산업화 시대에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개인이 겪는 불안심리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면, 「빛 속의 무덤」, 「싸게 사들이기」, 「염소는 힘이 세다」는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 훼손된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준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물화시키고 그 결과 인간의 이성은 도구화되며, 사고와 체험은 희화화된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하는 대신 인간은 비개성화 비인간화되어 자본주의의 도구화가 되고 세계는 영혼의 가장 내면적인 것을 잃은 채 허망감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sup>77)</sup> 사람들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권력에 편입하거나, 계산적인 인간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 체제내에서 일탈을 꿈꾸기도 한다.

「빛 속의 무덤」이라는 제목은 경제를 발전시키면 누구나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말하지만 실상은 소득 불균형만 낳은 자본주의의 허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사회와 집단이 요구하는대로 살아도 개인의 삶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경쟁체제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선 인정이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의식도 가지지 못하고, 자아 성취감 또한 맛볼 수 없으며, 결국엔 자신의 무미건조한 삶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탈을 꿈꾸게 된다.

「빛 속의 무덤」은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해 귀를 잘린 사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새로 돌아나면서 겪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언뜻 보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타인의 일에는 무관심한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과 아무 이유 없이 여자들을 겁탈하는 공군을 통해 죄의식마저 사라져버린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

---

77) 김형자, 위의 책, p.80.

한쪽 귀가 없어진 얼굴을. 사람들은 무엇이 결여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여 경계한다. 남자에게는 완전히 불필요한 젓꼭지지만 만일 어떤 한 남자만 특별히 젓꼭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를 싫어한다. 그런데 귀, 누구에게나 있고 필요한 귀가 하나 없어진 병신, 사람들의 ‘저놈은 싫어’라고 할 감정.(2권, p. 249)

교통사고로 한 쪽 귀가 없어진 공군은 앞으로 사람들로 부터 받게 될 따가운 시선 때문에 고민한다. 그래서 의사가 붕대를 풀어도 괜찮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붕대를 감고 다닌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상당했다는 것을, 그래서 귀가 하나 없는 얼굴을 가지고 다닐 거라는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다. 공군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결여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경계” (p. 249)하는 것을 보아왔고, 자신이 그런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놀랍게도 귀가 다시 돌아나기는 했지만 공군은 자신의 새로운 귀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있다고 해도 자신을 ‘좋은 연구재료’로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불안해 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새로 난 귀에서는 끊임없이 ‘철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고, 회사 동료들은 걱정해 주기는커녕 “재미난 소리가 내게도 들리면 좋겠어” 하며 재미난 놀이로 치부해 버린다. 공군은 혼자 ‘철벽거리는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나 결국 실패하고 소리로 부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자들을 겁탈하기 시작한다. 공군의 이와 같은 일탈 행위는 타인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간의 단절이 타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소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성적 자유로 표현되”<sup>78)</sup> 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군은 자신의 귀가 잘라지고 새로 듣는 과정에서 타인들의 무관

78)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1970년대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0), p. 198.

심과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 한다. 철벽거리는 소리는 이러한 공군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여자들을 겁탈해 가는 일탈된 행동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 ‘신데렐라’ 이야기도 일탈을 꿈꾸는 개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양은 “문화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라곤 국민학교 하나밖에 없는” (p. 270) 두메산골의 국민학교에 발령받아 내려온다. 그녀는 이 학교로 발령받은 것이 “뺨이 없어서” (p. 272)라고 생각하며, “어딘가 사건 많고 화려한 곳으로 가고 싶다” (p. 273)고 간절히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나타나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언제며, 그 시간에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묻는다. 이양은 식구들의 놀라고 기뻐하는 얼굴을 떠올리며, 집으로 가게 해 달라고 한다.

왜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로 진학할 때 자기는 이 소도시의 2년제 교육대학엘 가야 했던가, 그리고 친구들이 도시에 있는 일류 국민학교로 발령이 났을 때 자기는 벽촌의 부스럼쟁이들 틈으로 가야만 했던가. 이제 얼마 있으면 아무개의 방이나 집이나 토지를 팔아주고 얻은 돈으로 몽땅 술을 마신 주정뱅이 아버지가 신문에 폭풍경보가 날 때마다 한번씩 쓰러지는 허름한 대문을 쿵쿵 두드리시겠지, 그럴 때미다 어렸을 때의 나는 얼마나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았던가. 지금 방안에 있는 동생들이 이젠 나 대신 그 작은 어깨들을 움찔움찔 조일 것이다. 자식들이 번갈아 주무르는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며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에 시장에 나갈 때까지 끔끔 앓으며 잠을 주무신다. 그렇다, 이 시름한 김치냄새는 오늘밤만 갑자기 역겨운 것은 아니다. 이 냄새는 항상 이 작은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양은 빨리 두메산골의 자기 방으로 돌아가버리고 싶었다.(2권, pp. 276~277)

집으로 간 이양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자신이 너무 서두른 나머지

지 맨발에 잠옷바람이었던 것을 늦게 알아 차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독대에 숨어 있었는데, 그 곳에서 이양은 “억겨운 김치냄새”를 맡고 “무언가 명확해지는 것”(p. 276)을 느꼈다. 자신이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과 두메산골의 국민 학교에 발령받은 것도 바로 가난 때문이라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가난 속에서 살아온 이양의 삶은 바로 “억겨운 김치냄새”와 같은 것이었고, 이를 상기한 순간 조용한 두메산골의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돌아와서 이양은 세계지도를 펴고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 결국은 교육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집으로 가기로 한다. 그러나 친구 집 앞 골목에 선 이양은 “길 잃어버린 아이 같은 착각”(p. 279)이 들었다. 이 소설은 인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으로 인해 겪게 되는 심리적 고통과 무미건조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표출되어 있다. 이양은 뺨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녀가 물질, 권력이 중시되는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똑같은 생활만이 반복되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다. 이양의 일탈 욕구는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느끼는 무력감, 방향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물질만을 중요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존의 가치관을 전도시킨다. 철저한 계산에 의해 살아가고, 때로는 남을 기만하는 모습도 보인다. 「싸게 사들이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K는 대학 수위로 삼사십년을 근속한 영감을 “습관에 때가 낀” 무능력한 사람이라 여기며, 사람은 “혁명적으로 살아야 한다”(p. 159)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냥 주어진 대로 습관에 젖어 사는 것도, 단순히 충동에 사는 것은 아무런 보람도 없으며,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곰보네 서점에서 책을 싸게 사기

위해 하는 행위를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K에게는 책을 싸게 사는 비결이 있다. K는 사고 싶은 책에서 몇 페이지를 곰보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찢어낸다. 그리고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가서 그 책을 흥정한다. 그리고 페이지가 많이 찢겨져나간 책을 누가 사느냐고 배짱을 내밀어본다. 곰보는 대개 별수없이 양보하고 만다. 집에 돌아와서 찢어낸 페이지를 다시 그 자리에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면서 K는 기분이 좋다.(1권, p. 159)

K는 책을 싸게 사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없이 책에서 몇 페이지를 찢어내고 이를 핑계로 책을 싸게 사려고 한다. 서점 주인인 곰보영감이 K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속으로 “곰보야, 찢어라” (p. 160)하며 몰래 책을 찢기 위해 여념이 없다. 곰보영감도 K와 마찬가지로 계산적인 사람이다. “사람은 우선 잘살구 봐야 하는 거야” (p. 161)라며 월부로 들여 놓은 텔레비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단골손님이라고 해서 책을 싸게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단골손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게다가 텔레비전 월부금은 아내가 매춘을 하여 번 돈으로 낼 정도로 속물적인 인간이기도 하다. K의 친구인 R은 애인의 순결을 짓밟고 싶지 않아 대신 곰보의 아내를 찾고, K에게는 곰보의 부인이 자신의 누나라고 거짓말을 하는 위선적인 인간이다.

약은 체 살지 말라우, 이 곰보딱지야. 내일 당장, 아까 몇 페이지 찢어낸 책을 사러 와야겠다. 약은 체하지 말라우, 이 곰보딱지야. 나한테도 속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 R이란 놈, 기막힌 장사꾼인걸. 검은 제모와 텔레비전과 곰보의 사촌쯤은 댔을 나. 애 애, 주판 좀 가져와라, 어디 좀 생각해보자. 난중난문인걸. 골치가 좀 아프겠다. K의 혀가 입 속에서 뱅글뱅글 돈다.(1권, pp. 166~167)

K, R, 곰보영감의 삶은 철저한 계산의 논리가 작용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그것이 아무리 비도덕적인 일이라해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남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개인만이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속인다는 것이다. 결국은 누가 이익인지 알 수 없는 “난중난문” (p. 167)의 혼란한 시대가 바로 1960년대의 모습인 것이다.

「싸게 사들이기」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계산적이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이로 인해 인간마저도 교환가치로 전도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염소는 힘이 세다」는 권력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도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권력의 폭력성과 허위성을 수반하게 된다. 이 작품은 열두 살짜리 소년 ‘나’의 눈을 통해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린 ‘나’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인간은 힘의 강약에 따라 판단된다. 자신과 관련된 것, 즉 누나도, 나도, 어머니도 모두 힘이 세지 않다. 자신의 집에서 힘이 세었던 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와 염소뿐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센 것은 세상의 추악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기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완전히 힘이 세지 않다.” (p. 247) 또한 힘 센 염소도 우연한 홍수의 부산물이었고, 며칠 후에 죽어버림으로써 ‘나’의 집에 힘센 것은 하나도 없다. 힘센 것은 모두 ‘나’의 집 밖에 있다. 열두 살짜리 소년이 본 세상은 힘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는 누나가 아저씨에게 윤간당하는 사건을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누나처럼 힘이 없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저씨처럼 힘을 가진 자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냐. 나도 취직할 수 있을 뿐인 걸” (p. 259)이라고 말하면서 떨고 있는 누나의

목소리에는 자기와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소시민의 아픔이 배어 있을 뿐이다.

6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경제는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사람들은 오로지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경제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작 인간의 삶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참된 가치는 상실해 버리고 만다. 개인은 사회의 기능인으로서 부속품처럼 취급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가치 전도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산성」은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은 많은 것을 만들어 내었지만, 결국 그것에 인간이 종속되어 버리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돼지는 똥다’에서 주목되는 것은 ‘똥빵’이라는 어휘다. 작품내에서 ‘똥빵’의 의미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주인공 ‘나’를 포함한 열명의 친구들은 모두 사회 초년생들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단체가 되는데, ‘나’는 이 단체를 자신만의 용어인 ‘똥빵’으로 부르고 있다. ‘똥빵’의 의미는 ‘나’와 친구 ‘정태’와의 대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은 모두 장난감 같지 않아?” 정태가 나에게 속삭였다.(2권, p. 100)

"알겠어. 너의 용어로 말하면 똥빵이라는 작자는 나의 용어로 말하자면 장난감인데, 네 얘기는 장난감도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 생명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우수한 두뇌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안다는 얘기지? 그러

니까 얘기는 되돌아가서, 장난감에 대해서 가령 이쪽에서 믿지 않는다고 떠들어 보았됐자 믿지 않으면 안되는, 적어도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생겨서 꼼짝없이 이쪽을 끌고간다는 얘기지?“(2권, pp. 104~105)

정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두를 ‘장난감’으로 말하고 있고, ‘나’는 ‘찐빵’으로 말하고 있다. ‘찐빵’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에 결국 인간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참한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태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찐빵의 눈에 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려면 죽는게 최상의 태도일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런 용기조차 없어서 복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둘의 대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에 얽매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은 내면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물질적 가치만 추구해온 60년대 한국 사회가 낳은 문제인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토기도 똥다’는 토끼의 생명력까지 이용하려드는 현대 문명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다. 신문기자인 ‘나’는 국민무대의 레퍼토리가 유별나다고 하니 그것을 알아오라는 부장의 지시로 국민무대 연습장을 찾아간다. 그 곳에서 연출자는 과학이 우리 시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좀 엉뚱한 곳에서 쓰이고 있지 않느냐며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연출자의 난해한 질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번 공연에 대해서 말해 주기를 바란다. 연출자는 자신이 어릴 적

에 토끼 기르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과 좀 자란 뒤에 사람이 토끼를 기르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연극에서 “토끼의 생명력을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p. 123)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토끼가 사람 이상의 연기를 한다” 느니, “과학은 예술을 돕는다” (p. 131)느니 하는 식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연출자는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토끼를 연극에 이용한 것이 아니다. 연출가는 연극이 시작 전에 “여러분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p. 133)라는 말을 남긴다. 연출가가 연극에 토끼를 이용하는 것은 물질을 추구함에 있어 생명력까지 이용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과학이 예술을 대치하는 자리에서 인간의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토끼의 출연은 코메디가 되었고, 연극은 중단되어 버렸다. 연출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토끼의 출연을 하나의 서커스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관객들의 태도이다. 연출가는 연극을 통해 생명력까지 이용하는 인간의 이기심, 예술마저 과학으로 대치되는 상황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밝혔는데도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이가 없다. 인간 가치의 상실을 넘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판단마저 정지된 상태를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노인은 없다’는 살아가면서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인간에게 남는 것 쓸쓸한 삶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나’는 부업으로 어느 노인을 미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노인은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파고다공원을 거닐거나, 기원에 가거나, 극장에 가는 것이 전부인 쓸쓸한 노인일 뿐이다. 어느 날 노인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일로 ‘나’는 추궁을 당하게 되고 그 동안 노인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말하게 된다. 이는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노인은 ‘나’에게 젊었을 때 너무 돈만 생각하며 살진 말라고 충고하면서, 자신은 돈을 모두 잃어 버렸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훔쳐가 버린 것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무도 자기 아들을 가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노인은 젊은 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것에 대해 심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자신에게 있어 돈은 인생의 목표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았으나, 정작 자신에게 남은 것은 허무감뿐인 것이다. 게다가 자신을 보살피 줄 가족이라곤 동생뿐인데, 그 동생이 노인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홍신소에 사람을 시켜 교통사고나 유괴를 미리 막는 일뿐이다. 재물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노인이 “평생 놀기만 하고 지내겠다고 작정한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도와주라고 일러야겠다”고 말한 것은 재물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행복에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재물의 궁극적 목적이 전도되었음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 3. 타락한 사회속에서의 자기 확인

김승옥의 초기 소설은 급격히 변화된 현실속에서 갈등하는 개인의 내면 심리를 그리고 있으며, 64년작인 「무진기행」을 기점으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인간 소외 현상, 가치 전도, 윤리 상실 등-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60년대 후반에 쓰여진 소설로 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는데, 「내가 훔친 여름」, 「60년대식」, 「야행」이 이에 해당한다. 그 동안 이 작품들은 70년대에 쓰여진 작품들과 함께 세태묘사, 통

속소설로 취급받아 왔으나,<sup>79)</sup>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들 작품은 「서울 1964년 겨울」, 「차나 한잔」, 「들놀이」 등의 소설이 보여주었던 부조리한 60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과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 그러한 사회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루카치는 “소설의 진행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다”<sup>80)</sup>라고 말한다. 즉 소설의 진행은 그 자체 속에서 이질적이고 개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히 존재하고만 있는 현실 속에서 명백한 자기인식으로 문제적 개인이 나아가는 길이다. “자기 인식에 도달하고 난 후에 찾아진 이상은 삶의 의미로서 삶의 내재성 속에 비추어지고 있으며, 존재와 당위의 간격이 최고도로 좁혀짐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에 의해 한 인간의 존재가 가장 깊이 있게 또 집중적으로 비추어진다.”<sup>81)</sup> 삶의 의미를 한번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삶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삶은 한번 내던져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개인에게

---

79) 지금까지 김승옥 소설에 대한 연구를 보면 대체로 「다산성」을 기준으로 전기소설과 후기 소설로 나누어 설명한다. 장현은 “전기 소설이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갈등이 인물의 내면 의식을 통해 진정성을 확보한 데 비해, 「다산성」을 중심으로 한 이후의 소설들은 내면의식의 가벼움으로 인해 세태 묘사로 치닫게 된다”고 보았다.(장현, 「김승옥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0, p.48) 류보선은 “작가의 마지막 단계에 통속소설이 놓인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의 후기 소설은 “더 이상 자기세계의 확립에 대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작가 의식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류보선, 「김승옥론-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인식과 그 의미」,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p.308) 한형구는 “실상 그의 작가적 생명력은 힘겹게 역지로 썩어졌던 1966년의 「다산성」 이래 1969년의 「야행」에서 거의 소진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터이며, 오랜 침묵 끝에 발표한 1977년의 「서울의 달빛0장」이나 「강변부인」 그리고 광주 항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연재 15회 만에 자진 중단했다고 하는 1980년의 「먼지의 방」 등은 한갓 여기이거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한형구, 「역사에의 두려움, 혹은 생활에의 의욕」, 「한국 근대문학의 탐구」, 태학사, 1999, p.137)

80)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p. 86.

81)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p. 87.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김승옥의 후기 소설에서 보이는 자신의 반성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현실을 깨우쳐 나아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내가 흠친 여름」은 S대학을 휴학하고 낙향해 있는 ‘나’와 나를 찾아온 가짜 대학생 정영일의 여행담을 통해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골 출신인 ‘나’는 “거룩한 서울대”에 들어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 버린 인물이다. 내노라하는 친구들로 범석대고 있는 이 학교에서 자신이 얻은 것은 경쟁에서 낙오된 자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뿐이고, 경쟁자를 의식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방학중인 학교야말로 “나의 학교”라고 느끼는 자이다. 서울대에서 심한 좌절을 맛본 ‘나’는 교수님의 인세를 탕진하고 결국 고향인 무진으로 내려오게 된다. 여기서 중학교 동창인 장영일을 만나게 된다. 장영일은 서울대 각 단과대학의 모든 배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배지를 갈아 끼우는 가짜 대학생이다. 그가 생각하는 현대는 “신분을 가져야 세상에 존재하는 걸로 인정되는 시대”(p. 51)이기에, 서울대 학생임을 표시하는 배지가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는 인물이다. 이 둘은 아무런 계획도, 돈도 없이 여수행 기차에 오르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수에서 강동우씨네 가족을 만나는 대목이다. ‘나’와 장영일은 서울대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동우씨네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 강동우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진짜 경제적이다”(p. 152)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이란 집안 전체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며, 권위를 얻기 위해 아들 강동우를 무조건 유학을 보낸다. 강동우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카바레니, 운수회사니,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실망보다는

잘만 하면 국회의원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고 좋아하는 속물적 인간이다. 강동우도 그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속물적인 인간이다. 그의 동생의 남편감을 고르는 첫째 기준이 경제적인 능력이며, 애정을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수에서 ‘나’와 장영일이 본 사람들의 모습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별의별 짓도 다하겠다는 자세”와 “다른 직업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경멸”(p. 127)을 보이는 것이었다.

「내가 흠친 여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정서적 안정감이 없고, 남들 보다 잘 살기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다. 진실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고, 자신을 조작하며 살아가는 장영일, 물질적인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강동우씨네 가족의 모습은 경제발전만이 지상 최고의 목표이고, 다른 모든 가치들은 우습게 부정 당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영일의 분위기에 휩쓸려 여수까지 같이 오게 된 ‘나’는 점점 갈수록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뚜렷이 인식하게 된다.

이것이 여름일까? 그래 이것이 여름이다. 비치 파라솔, 눈부신 백사장, 검푸르고 부드러운 파도, 빨간 수영복, 풍만한 아가씨의 웃는 얼굴, 하얗고 가지런한 이빨, 짧기 때문에 유쾌한 자유, 그것들은 나의 여름이 아니다. 나의 여름은, 차표없어 불안한 기차여행, 신분을 속여 맡은 일거리, 땀내음에 찌든 아가씨, 겁탈 같은 유혹, 비련내 나는 여인숙에서의 정사, 그리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괴로운 휴식과의 만남일 뿐이다.(3권, p. 191)

‘나’가 경험했던 여름은 짧기 때문에 유쾌한 자유가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 그때 난관을 모면해야하는 불안전한 삶 그 자체이다. 개인의 가치가 학교 배지 하나로 평가되는 가치 전도의 시대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유혹에 이끌리어 가지만 결국 남는 건 괴

로운 휴식과 같은 만남일 뿐이다. ‘나’의 이러한 진술은 지나치게 물질을 숭배한 나머지 도덕·윤리적 가치가 타락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암울한 시대상의 고발이며,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반성이다. 이는 작품의 뒷부분에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나는 문득, 소리밖에 가지지 않는 이 밤바다가 영일이가 토해내는 오물과 선배님과 그의 작부가 부르는 유행가 소리에 더럽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중략) 나는 어두운 바다를 향하여 돌아섰다. 그들이 내 등뒤를 지나기를 나는 기다렸다. 이 시간에, 나의 여름이 이 여인숙의 비린내 나는 방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고, 태양도 형태도 빛깔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소리만, 저 괴로운 신음 같은 소리만 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는 바다야말로 비로소 내 뒤흔 바다인 듯이 생각되어 놓쳐버리고 싶지 않은 이 시간에 나는 영일이와 선배님을 그냥 보내고 싶었다. (중략) 나는 이 어둠 속에 오래 묻혀 있고 싶었다. (3권, pp. 194~195)

바다의 이미지는 김승옥의 초기소설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그의 소설에서 바다는 “삶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로 간주된다.”<sup>82)</sup> 개인이 현실과의 갈등이 있을 때 고향이나 바다를 찾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확인하여 자신의 나아갈 바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절망하여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내가 흠친 여름」에서 ‘나’는 영일이의 거짓된 삶과 강동우씨네 일가에 굴복하고 술에 취해 작부와 유행가나 부르는 선배님의 무능함이, 삶의 근원 자체를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삶의 목표도 없고, 괴로움만이 있

82) 이승훈은 바다는 흔히 ‘낮은 대양’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동하는 물, 공기같은 무형적인 존재와 대지 같은 유형적인 존재를 매개하는 인자로 인식된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바다는 죽음과 삶을 매개하는 이미지로 드러나며, 바닷물은 삶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로 간주된다고 하였다.(이승훈, 앞의 책, p. 186.)

는 이 사회를 자신의 몫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장영일의 분위기에 휩쓸려 여수까지 오게 되었고, 서울대 배지 하나에 처음 본 자신을 믿어 버리는 선배님과 강동우씨네 가족들의 어리석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는 부조리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변 인물을 통해 자신도 똑같이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김승옥 소설에서 보이는 인물은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관찰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내가 훔친 여름」에서는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을 질책하는 반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60년대식」, 「야행」으로 갈수록 좀 더 뚜렷이 나타난다.

「60년대식」은 사립학교 사회과 교사인 도인이 자살을 결심하고 신문사와 교장선생에게 각각 유서와 사표를 써서 부치는 것에서 사건이 시작된다. 도인은 자기 죽음의 의미만 널리 알려진다면 죽는 것이 싫거나 무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문사도 교장선생도 도인의 죽음에 무관심하다. 결국 도인은 자기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기 위해 자살을 하루 연기하기로 한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도인이 자살하려는 이유다. 작품 초반에서는 “이 시대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p. 202) 죽으려 한다고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인데, 자살을 유보하고 얻은 하루동안의 체험에서 죽음의 의미는 서서히 드러난다.

먼저, 도인은 대학교 2학년때 “남성을 시험한” 하숙집 딸 애경을 찾아가 보기로 한다. 도인의 하숙집 주인인 고바우영감은 딸 다섯을 “무사히 처분” 하기 위해 대학 앞에 하숙집을 연 사람이다. 그는 하숙생들 중에서 짝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딸과

연결시킨다. 애경이는 고바우영감의 다섯 번째 딸로 역시 고바우영감이 정해진 하숙생과 결혼을 하나 남편이 성불구자여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그녀를 만만히 본 도인은 그녀를 실험 대상으로 노린 것이다. 이후 도인은 고바우영감의 사위 후보생이 된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집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어졌고, 결국 하숙집에서 나오게 된다. 도인은 자살을 결심한 지금, 애경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애경을 찾기로 한 것이다. 도인이 찾은 애경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춘목결혼상담소에서 이현숙이라는 가명을 쓰고,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신에 행동에 아무런 수치심도 없었고, 심지어 돈의 유혹에 못 이기며 몸을 팔기도 한다. 게다가 결혼상담소 장사장은 위암 걸린 아내를 위해 애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위선적인 인간이다. 도인의 체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애경과의 만남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만난 황영감의 손자는 “세상만사는 결국 스태미너 내기”이며, “시합에서 이기는 놈이 진짜 강한 자”(p. 268)라고 하면서, 밀수공화국을 이상으로 삼는다. 계의 오야는 도인의 아내였던 주리의 빛을 받으러 왔다가 도인에게 월남간 남편을 대신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풀어달라고 유혹하는 ‘병’적인 인물이며, 교장은 재벌이야말로 미래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헌책방으로 자신의 책을 팔러 갔을 때에도, 양서 보다는 보기 좋은 것만, 예를 들면 원색춘화집 같은 것이 더 값어치를 인정받는 시대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을 뿐이다.

도인이 죽음을 유보하고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이다. 물질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도덕·윤리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만 군밤이며, 자동차며, 극장이며, 대학이며,

대통령이라는 제도” (p. 288)뿐이라는 것을 도인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시대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도인은 하루 동안의 체험을 통해 죽는 것을 그만두기로 한다. 하루 동안 그가 깨달은 것은 “이성과 지성에서 나온 판단을 밀고 나갈 최소한의 정열” (p. 326)조차 자신에게는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제야 도인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열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과도한 정열이, 또는 정열로 위장한 추잡한 욕망이 빚어내는 인간에 대한 과오를 경계한 나머지 이제 그에게는 이성과 지성에서 나온 판단을 밀고 나갈 힘이 되어줄 최소한의 정열조차 닳아 없어져버린 것을 깨달은 것이다.(3권, p. 326)

세계는 어차피 정열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이다.(중략) 만약 정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꼬워 보인다면 정열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세계를 구워먹든 찢어먹든 내버려두는 것뿐이다. 무관심- (3권, p. 327)

도인은 애경을 사랑하는 화학기사로부터 “당신에게는 정열이 없어 보인다” (p. 326)라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절망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잘못된 사회를 바로잡아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열인 것이다. 그조차도 갖지 못했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추잡한 욕망만으로 가득한 인간들로부터 무관심해 지는 것이다. 무관심은 체념과 다르다. 세상 사랑하기를 그쳐 버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밖에 없지만, 욕망만으로 가득한 인간들로부터 무관심하다는 것은 최소한 세상의 부조리한 면을 피부로 느끼고 답답해하는 비판적인 인간을 남겨 놓

는 셈이기 때문이다. 점점 삭막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왜소한 자기의 그림자를 보았던 도인, “대상의 중심에는 커녕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엉뚱한 변두리에서만 빙빙 돌고 있는” (p. 328) 자신을 발견한 도인은 60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반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야행」은 거짓과 속임수만이 난무하는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여인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주인공 현주는 남편과 같은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그들이 부부인 것을 아무도 모른다. 직장에서는 기혼여성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타인들처럼 연극을 하며 살고 있다. 현주는 이러한 속임수의 삶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던 8월 어느 날 현주는 거리에서 한 사내를 만나게 된다. 이 사내는 다짜고짜 현주의 팔목을 잡고 여관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현주의 팔뚝이 몹시 매끄러워 보여 자신의 손에 넣어 만지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한다. 이 사건은 현주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그리움으로 변해 갔다. 8월에 만난 사내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현주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겨 주었고, 이런 거짓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다시 그런 공포와 혼란을 느끼기 위해 밤거리를 서성거리게 된다. 그러나 밤거리에서 만난 사내는 8월에 만난 사내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도, 자신에게 공포와 혼란을 안겨주지도 못한다. 8월에 만난 사내는 “감옥에 가는 것을 겁내지 않거든” (p. 277)이라고 말해 줄 정도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밤거리에서 만난 남자들은 자신의 거짓된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은 없고, 일탈적 성관계만 갖고자 하는 유치한 사람들뿐이었다. 이후 현주는 자신의 욕구가 쉽사리 이루어 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현주가 거리에서 서성거리는 행위는 결국 정체성의 확인 작업을 통하여

자신을 통합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되지 못하는 자아가 겪어야 하는 고통은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제야 그 여자는 자기의 욕구가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중략)...그러나 그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그러한 의식으로 포장하게 될까봐 하는 것이었다. (중략) 그 여자가 바라는 것은, 그렇다, 파멸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의 자리에 의식을 대신 들여앉히려는 유혹은 그 여자의 서성거림이 잦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이었다. (중략) 아니 그 사내가 젊고 호감가게 생겼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본 이후에 그 여자의 내부에 번진 그 쓸쓸한 느낌이 그것이었다. 스크린을 향하여 하마터면 팔을 내밀 뻔했던 그 유혹이었다.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저으며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었다.(1권, pp. 278~279)

현주는 “속임수로부터의 해방”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내의 “엑센 팔뚝”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8월의 사내처럼 당당한 모습은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은 그녀의 남편처럼 비굴한 타협으로 그녀의 몸을 희롱하고자 하는 속물들 뿐임을 그녀는 확인한다. 그녀는 속임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p. 279)이란 현주처럼 거짓된 삶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김승옥의 후기 소설은 70년대 소설이 “가볍고 사소한 일상성에 주목하며, 또한 의식적이고 지성적이기보다는 세속적이고 감성적”<sup>83)</sup>인 면이 두드러지듯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범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

83) 김춘식,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사이 - 60년대 후반~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해서」, 『한국문학연구』 제20집, 1998, p. 154.

대다수의 견해이다. 조진기는 작가가 “물신주의에 압도되어 건강한 작가 의식도, 투철한 현실인식도 갖지 못한 채 방관자적 이야기꾼으로 전락”<sup>84)</sup>했다고 비판했으며, 정과리는 “현실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기보다는 현실의 모습을 장난으로, 무의미한 장난으로 돌려 버리는 데 더 큰 힘을 갖고 있다”<sup>85)</sup>고 지적한다. 윤병로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기세계의 집착하고 바깥세계에 대한 당당한 대결의지를 미처 갖추지 못한 김승옥의 시민의식은 결국 상업주의에 침해되고 만다”<sup>86)</sup>고 하였고, 진정석은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의 화두는 작위적인 생기조차 상실하고 도시인의 성적인 일탈 차원으로 의미가 축소되어버린다”<sup>87)</sup>고 지적한다.

많은 논자들이 지적했듯이 후기 소설이 개인과 사회의 팽팽한 긴장감이 나 대결의지를 다소 상실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후기 소설은 정신적 가치의 훼손, 성의 상품화, 가족의 붕괴를 통해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진단은 물질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인간이 기계화된 시대에서 개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의 전초작업이 될 수 있다.

「보통여자」와 「서울의 달빛 0장」은 자본으로 인해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여자」는 수정이 선을 통해 명훈을 알게 되고,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 겪는 갈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수정은 사회생활도 하지 않고, 토요일이면 명훈의 전화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여성이다. 그녀가 이렇게 소극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딸자식일수록 “때가 덜 묻

84) 조진기, 「불안한 감수성과 퇴폐적 일상」, 『작가연구』 6호, 1998년 하반기, p. 61.

85) 정과리, 앞의 글, p. 715

86) 윤병로, 「한국근현대소설의 흐름」, 『윤병로 평론 선집2』, (새미, 2001), p. 440.

87) 진정석, 앞의 글, p.425.

으면 물을수록 좋다”(p. 33)는 생각을 가진 그의 어머니 때문이다. 수정의 어머니(김씨)는 남편을 여의고, 애를 셋씩이나 키우면서 세상에 믿을 것은 오직 ‘돈’ 뿐이라고 생각한다. 돈놀이를 하면서 세상은 “남들과 악착스레 물고 뜯는 관계”(p. 32)만이 성립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식들이 세상의 악랄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김씨의 ‘돈’에 대한 욕망은 사위를 고르는데 있어서도 드러난다.

큰돈을 관리하자면 여자란 아무래도 부적당하다는 것을 그 여자는 알고 있었다.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명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략) 우선 그는 만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갓집 재산을 자기네 것으로 흡수해 버릴 염려가 적다. 둘째로 상과대학 출신이다. 상과대학 출신 치고도 제체한 은행원이 아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셋째 그의 집안이 너무 부자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하질 않다. (중략) 넷째 명훈이 장교 출신답게 맺고 끊음이 분명한 성격인 듯 하다. 그건 적잖은 재산을 키워나가고 사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격이다. 다섯째, 이권 수정이를 위해서지만, 인물이 잘생겼다. (중략) 이래저래 김씨는 명훈을 사위로 맞게 된 데 대하여 자못 만족하고 있으며 그가 정작 사위가 되고 나면 흠어져 있는 재산을 모아 그를 앞장세우고 뭔가 큰 일을 하나 꾸며나갈 작정이다.(4권, pp. 139~140)

김씨의 사위 고르는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다. 만아들이여서는 안되고, 상과대학 출신이어야 하며, 집안이 너무 부자이거나, 가난해서도 안된다. 또한 맺고 끊음이 분명한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모두 김씨의 재산을 불리기에 필요한 것이며, 명훈은 이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기에 놓치고 싶지 않아 한다. 심지어 수정과 명훈이 다투어 일이 잘못된다면 자신의 재산을 미끼로 하여 잡아두겠다는 계획까지 세워 둔다. 물질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김씨와 같이 돈을 맹신하는 인물을 양산했

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는 교환가치로 변질되었으며, 김씨가 사위를 고르는 기준은 이런 양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보통여자」에서 돈을 맹신하는 인물은 김씨만이 아니다. 명훈과 육체적 관계를 갖고 있는 종숙도 돈으로 인해 변해버린 인물이다. 종숙은 어린 시절에 집착해 있는 여자인데,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산가’ 였는데, 이후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자살소동까지 벌일 만큼 무너져버렸고, 이때부터 종숙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p. 128)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면 할수록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는 깊어졌고, 이를 채우기 위해 학교동창인 명훈과의 만남을 계속 가져온 것이다. ‘돈’에 대한 집착은 정신적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종숙과 명훈의 만남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의 만남에는 사랑, 믿음, 신뢰라는 감정을 찾아 볼 수 없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지 즐기지만 하는 사이이다. 종숙은 명훈에게 부담스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명훈의 아이를 가졌으면서도 명훈에게 알리지 않고 지워버린다. 그리고 명훈에게서 아무 미련 없이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명훈은 이런 종숙의 행동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 종숙과 명훈에게는 어떠한 양심도, 어떠한 책임도 찾아 볼 수 없다. 타인에 대한 무책임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도덕·윤리적 가치가 얼마만큼 훼손되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보통여자」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정신적 가치를 상실한 속물적인 인간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인물이 수정인데, 작품의 마지막에 가서는 순진한 수정도 세상에 물들기 시작한다. 수정은 믿었던 명훈이 종숙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후 위선적인 명훈의 행동을 통해 심한 환멸을 느낀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의 무의미함을 느껴 자살하려 하나, 명훈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명훈

과 하룻밤을 보낸다. 수정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의 악랄함을 터득했듯이, 세상의 무서움을 알았고, 종숙과 명훈처럼 이기적인 인물의 모습도 보았다. 그런 사회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들과 똑같이 ‘보통여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보통여자」에서 보이는 사회의 모습은 황폐하기 그지없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문제 앞에선 이기주의자가 되고, 인간관계는 교환가치만이 성립하며, ‘돈’에 대한 욕망은 비정상적인 성문화를 배태시켰다. 이 소설은 비정상적인 사회의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건강이란 육체적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p. 88)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서울의 달빛 0장」에서도 자본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작품은 사랑과 믿음의 바탕이 되는 가족마저도 자본으로 파괴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나’는 대학의 시간강사로 대학동창의 결혼식으로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인기 탤런트 한영숙을 만나게 된다. ‘나’는 한영숙과의 만남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결혼하나, 영숙은 ‘나’만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 첫날밤 영숙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후에 영숙이 자연유산을 하게 됨에 따라 그녀가 과거에 인공유산의 경험이 많음을 알았다. 영숙은 추잡한 욕망으로 가득찬 자들-작품에서는 ‘도깨비’로 표현된다-이 “실컷 뜯어먹다 싫증이 나서 던져준 썩은 고깃덩이”(p. 309)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된다. 영숙에 대한 ‘나’의 절망감은 캘린더 촬영 때문에 늦겠다던 영숙이 술집에서 다른 호스테스들과 함께 들어오면서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 그녀와 이혼하게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영숙이 “대중의 소유물”인 배우가 된 것은 부모님과 네 명의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기 때문이고, 결혼 후에도 매음행위를 한 것은 친정집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결국 바라는 건 필요 이상의 음식, 필요 이상의 교미, 섹스의 가수요, 부잣집 며느리 여름철에 연탄 사 모으듯, 남의 아내건 남의 아내가 될 여자건 닥치는 대로 붙는다. 남의 사랑을 위한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 (중략) 썩은 사타구니에서 쏟아지는 썩은 감정. 자리를 찾지 못한 자들의 증오. 평화가 만든 자유. 여유가 만든 가수요. 가수요가 만든 부패. 부패가 만드는 증오. 부패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남은 일은 증오의 누적, 그리하여 전쟁. 전쟁은 필연적이다. 전쟁으로 모두 빼앗기고 다시 시작. 인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1권, p. 299)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인가를 욕망한다. 이러한 욕망은 ‘필요 이상의 교미’를 낳았고, 부패를 낳았고, 증오를 낳았다. ‘나’는 아내 영숙과의 이혼을 통해 남녀 관계마저 경제관계로 만들어 버린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보았고, 이로 인해 괴로워한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 강사 일도 집어치우고, 3개월 동안 60명 이상의 여자와 관계를 갖기도 하나, 자신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이 공허함은 가족조차도 채워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족 또한 “이혼한 여자에게 일원 한 푼 줄까봐 독이 오른 눈으로 감시”(p. 293)하고 있는 타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이 사회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혼 이후, 이혼의 충격으로 멍해 있을 때 생활은 엉뚱한 방향에서 이상한 틀을 가지고 나를 덮쳐 나를 그 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중략) 그러므로 이젠 내가 아니라고 하는 내가 나임을 나는 안다. (중략) 그러나 아무리 떠내려가도 가까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내나 친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이전의 나는 그때의 그 관계대로 어느 시점에서 영화의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서 지나가버린 시간의 땅 위에 남겨진 채로 나 자신에게조차 전연 낯선 나만

이 낯선 여자와 함께 가까워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캄캄한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 어두운 바다는 전혀 다른 법칙으로서 역시 상투적이었다. 타인끼리만 지키는 캄캄한 법칙의 바다였다. 그런 바다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위험했다. 육지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자는 잠시 얕은 바다에 뛰어들면 되지만, 되돌아가고 싶은 육지도 없이 바다의 부력에만 존재를 맡기고 떠내려가는 자가 변화를 시도하려면 물속 깊이 빠져버리는 수밖에 없다.(1권, pp. 312~313)

이혼 이후 ‘나’는 자신의 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한다. 자신과 타인은 항상 거리가 있었고, 그 거리는 좁혀질 줄 모른다. 낯선 ‘나’와 낯선 여자들이 존재하는 이 사회는 ‘캄캄한 바다’일 뿐이다. 그런 바다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결국 ‘나’의 절망감은 아내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나’는 아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차를 사고, 아파트를 판 일부의 돈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을 아내에게 건넨다. 그리고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하려 한다. 이는 ‘나’ 또한 타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속을 교환 가치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전 남편의 타락을 확인한 영숙은 그가 준 통장을 찢어 버림으로써 그와의 관계를 끝맺는다. 마지막 부분의 ‘찢어진 통장’이 인간다움의 최저 생존치를 미약하게나마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개인과 사회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70년대의 고도성장정책은 자본과 욕망만이 출렁이는 사회를 만들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현상들이 만연하도록 만들었으며, 성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인간관계까지도 황폐하게 만들었다. 부패한 사회는 증오라는 감정을 누적시켰고, 혼란한 시대에 환멸을 느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절망과 체념뿐인 것이다. 「서울의 달빛 0장」은 남녀의 결혼과 이혼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70년대 사회의 모습

을 여과없이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강변부인」은 “불륜이 비어홀처럼 만연해지며 신종 오락처럼 그 유행을 시작한 70년대”<sup>88)</sup>를 포착하여 보여준 작품이다. 이 소설은 “비뚤어진 성의식을 보여주는 포르노소설”<sup>89)</sup>이라고 지적될 만큼 인물들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 부분이 작가의 비판적인 시선을 감소시키는 면이 없지 않지만, 등장 인물들이 성적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민희는 남편 몰래 고고장에서 파트너였던 남진과 육체적 관계를 가져 왔다. 이들은 서로의 비밀을 꼭 지켜줘야 함을 알고 더 이상 서로에 대해 알려들지 않고, “피차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체면이나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시간”(p. 192)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만남을 계속해 온다. 이런 관계 속에서 민희는 어떠한 불안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들키지만 않고 그때그때 미련없이 끝난다면 그 행위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는 것”(p. 204)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소설에서 보인 인물은 타락한 사회에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자신에 대해 환멸을 느끼거나, 최소한 인물의 내면에서 심한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민희는 부정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민희의 이런 모습은 황폐해진 인간 정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며,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드러낸다. 게다가 남편의 부정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부정은 긍정하면서도, 타인의 부정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

88) 김승옥, 「나와 소설쓰기」, 앞의 책, p. 12.

89) 김진기, 앞의 글, p. 74.

민희는 이제껏 어느 누가 건드려도 끄떡없다고 자신하고 믿고 있던 견고한 자기 가정이 와르르 소리내며, 그 허구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느끼며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길게 질렀다.(4권, p. 205)

자신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가정이 견고하다고 믿는 민희의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다. 자신의 부정은 긍정하면서 남편의 부정을 알고 충격을 받는 민희. 민희는 그제서야 자신의 가정의 허구적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올바른 가치관이 자리잡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반면에 올바른 가치관이 붕괴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자하면서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중적인 모습은 민희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남편 영준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적 쾌락을 즐기는 인물이다. 영준은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보니 “돈이나 쥐야 젊은 아가씨와 통할 수 있는 늙은이”(p. 197)가 되어버린 것 같은 “서글픈 갈증” 때문에 술집 아가씨를 사들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자를 아무리 사들여도 자신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폭력까지 휘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소진되지 않는 욕망은 인간을 폭력적으로까지 만들게 되며, 타락한 성문화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강의원 부인인 남여사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민희에게 양일을 소개해 주었고, 그들이 육체적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분노에 휩싸여 아내를 구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준다. 민희와 마찬가지로 영준도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기적인 인간인 것이다.

「강변부인」에서의 민희와 영준의 모습은 지금까지 소설에서의 위악적인 인물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떠한 도덕적·윤리적 가치도 찾아 볼 수 없고, 자신의 부정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이기

적인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사랑과 믿음이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가정조차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회가 회복되기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난 당신을 못 믿고 살아왔어요. 내 자신도 못 믿겠어요. 그러구, 당신도 날 못 믿을 거예요. 아이들도 어떻게 키워야 훌륭하게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돈봉투를 갖다주다보니 선생님들도 못 믿게 되어버렸구……나 같은 년 붙잡아 댜서 뭘 해요.” (4권, p. 304)

양일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킨 민희는 자신의 가정 지키기를 포기한다.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 버리고, 자신의 미래인 아이들조차 어떻게 키워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는다. 민희의 절망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다. 가치관이 붕괴된 70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절망이며, 작가는 「강변부인」이라는 작품을 통해 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보통여자」, 「서울의 달빛 0장」, 「강변부인」에서 보여준 인물의 모습은 이전의 작품보다 훨씬 더 위악적이다.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시선도 없고, 자본에 점점 물들어가는 자신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에 물들어, 추잡한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할 따름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 사회와의 진정한 모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점점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사회속에서 가장 극한 상황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진정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진정한 삶’의 모색

「보통여자」, 「서울의 달빛 0장」, 「강변부인」에서 보듯 자본과 욕망만이 출렁이는 사회를 경험한 자아는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다룬 작품이 「그와 나」,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 「먼지의 방」이다.

「그와 나」는 사회속에서 적당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나’와 편안하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그’를 통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작품이다. ‘나’는 “단 하루라도, 학생인지 공무원인지 상인인지 건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복 차림의 꼴”(p. 282)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인물이다. ‘나’의 고향에서는 입영을 앞둔 장정이 녹슨 쇠못에 찢려 파상풍에 걸려 죽은 일이 있었는데, ‘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녹슨 쇠못처럼 불가시적인 우연이 나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시험 제도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서울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이런 ‘나’를 보고 양심이 “눈꺼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구만”(p. 285), “편하게 살기가 제일 불편한 거요”(p. 286)라고 질책하는 ‘그’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질책에도 “네까짓게 녹슨 쇠못을 어떻게 알겠느냐!”(p. 286)하며 무시해 버린다. 이후 ‘나’는 데모 대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라”(p. 288), “자기의 내일을 발명해야 한다”(p. 290)고 외치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나’의 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나」에서 불가시적인 두려움에 항상 불안한 ‘나’는 사회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구가하려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심리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는 ‘나’의 부정성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소설은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내세우면서도 ‘나’에게 살아있는 인물로서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그’를 통해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인물에 대한 단순한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와 지향하는 바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삶에 대한 고찰은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에서 좀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 소설은 소설가 정한이 어느 날 회사 사보에 실을 콩트 형식의 짧은 글을 청탁받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소설에 써 온 ‘진정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야기다. 소설가 정한은 어린 시절 친척이 경영하는 서점에서 닳치는 대로 읽어댄 책들에서 얻게 된 ‘진정한 삶’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일한 능력”(p. 325)으로 하여 소설을 써 온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회사 사보의 원고 청탁이 들어온다. 정한은 마치 대학 동창처럼 편하게 대해 주는 회장의 부탁도 있었지만, 원고지 매수와 상관 없이 한 달 생활비를 사례로 준다는 말에 원고 청탁을 승낙하고 만다. 그러나 정한은 곧 자신이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소설을 써 왔던가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하게 된다. 그는 아무리 가난한 부모를 가진 자식일지라도 본인이 원하고 노력하는 한 교육받을 기회는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의 돈벌이 경쟁으로 인해 자식 교육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사회”(p. 325)와 다름없다고 생각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재벌회사의 비매품 사보에 실리는 콩트를 쓰기 위해서 “팔려가는 소”(p.328)처럼 호텔 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삶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써왔던 ‘진정한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열다섯 살에 인쇄소 심부름꾼으로 들어와 지금 나이 오십이 넘도록 조판공으로 일하고 있다는 남자에게는 정한이 써대고 있는 이른바 ‘진정한 삶’이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일까? 동시에 아내에게도 그런 것들은 얼마나 허황돼 보였을 것인가? 그가 써왔던 진정한 삶이란 그 자신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며, 아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야말로 꿈일 뿐.(1권, p. 326)

그 동안 정한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용기의 결핍과 게으름 때문이라고만 여겨 부끄러워해왔고, 언젠가는 ‘진정한 삶’을 향해 돌진하는 구제의 시간이 반드시 닥쳐오리라고 기대해왔다. 그러나 당장의 생활이 급급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한은 한 달 생활비를 얻기 위해 글을 쓰러가는 지금, 그 동안 자신이 ‘누더기’ 같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질없는 공상을 했는가를 깨달은 것이다. 이는 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만을 외치며 경제 개발에 힘써왔으나, 빈익빈부익부라는 경제 악순환만 낳게 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동시에 ‘부’를 가지지 못한 다수의 소시민에게 인간 소외니, 정신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느니 아무리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작가는 정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한은 자신이 얼마나 “낮은 울타리 속에서 살면서 돌아온 적도 떠나간 적도 없는 삶을 살았던가”(p. 328)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그는 물질로 인해 이 사회의 모든 가치들이 훼손당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 ‘진정한 삶’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며 그 속에서 부딪쳐서 투쟁하는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깨달음이다. 정한은 ‘생활’과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삶’을 터득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소설을 쓸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 것이다.

「먼지의 방」은 1950년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했으나 광주사태 발발의 충격으로 펜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작하자마자 중단했던 작품이다.<sup>90)</sup> 비록 미완의 작품이기는 하나 혼란한 사회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물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영기는 가난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본의 아니게 독신주의자가 된 인물이다. 여자를 사랑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만약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동생들의 뒤치다꺼리를 했듯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영기는 자신의 가족을 갖는게 부담으로 다가올 만큼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사소한 교유 관계에서부터 국가문제에 대한 사고까지 남들 뒤편으로 물러서버리는 ‘수줍음’이 항상 그의 “마음의 벽을 활쾅고 목을 답답하게”(p. 294) 죄어오는 것이었다. 영기라는 인물은 7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4.19로 이룩한 자유는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짓밟히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는 인간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었다. 이 시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판단정지’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정지’는 부조리한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작가는 이러한 영기와 대조하여 소암선생을 등장시킨다. 소암선생은 영기의 ‘황량함’을 일깨워 주는 인물이다.

내 생각으로는 자네 생각에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어. 첫째는 정치의 목적은 부국강병이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점이야. 부국강병은 그 도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둘째로 그 도덕성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유한하다는 데서 출발해야 해. (중략) 욕망이란 없앨 수는 없지만 참을 수는 있는 거야. 무조건 참으려면 참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네가 참는다면 나도 참을 수 있기도 하고 넌 이

90) 김승옥, 「나와 소설쓰기」, 위의 책, p.13.

것을 가지고 그 대신 난 이것을 갖는다고 서로 욕심을 바꿔 갖고 참을 수도 있는  
게야. (중략) 그 조정하고 타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란 불완전한 존재  
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중략)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다는 걸 서로 인  
정해야만 거기서 관용이 생기고 관용이 있어야만 욕망의 조절이 가능한 거 아니  
겠나?(2권, pp. 298~299)

소암선생은 영기에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고 얘기하며, 이는 사람이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즉 “나는 완전한데 너만 불완전하다는 생  
각에서 폭력이 나오고, 남들은 완전한데 나만 불완전하다는 생각에서 비굴  
과 노예가 생긴다” (p. 298)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승옥 소설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크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짓밟거나, 역사를 조작  
하며 사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사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방황하  
거나, 자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암울한 사회상에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  
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  
하고 서로의 욕망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관용이 생길 때 이 사회는  
희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먼지의 방」에서 영기는 세상을 부정하고,  
사람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소암선생은 이런 영기를 보면서 사랑도 할 줄  
모르는 ‘송장’과 같다고 표현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싸울 줄 모른다는  
것이고, 싸울 줄 모른다는 것은 어떠한 이상도 없다는 것이다. 소암선생이  
지적했듯이 “이상은 이상을 가진 몇 사람이 있다는 걸로 의미 있는 게 아  
니라 실현되어야만 한다.” (p. 302) 「먼지의 방」에서 영기에 대한 소암  
선생의 지적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암울한 6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의  
식의 허구성을 문제삼음으로써 뒤틀린 의식의 시원인 60년대, 70년대로 되  
돌아가 우리의 현대사의 진행과정을 반성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몇몇 후기 작품들이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 한 점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후기 작품 전체가 평가 절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와 나」,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 「먼지의 방」에서 보듯 사회와 개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자기 반성적 인식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작가가 지향하는 바가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 IV. 결 론

50년대의 한국 소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60년대 소설은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50년대 소설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달래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문학에 투사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60년대 소설에서는 그 상처가 내면화되고 자유에 대한 억압의 상황에서의 자유의 문제와 산업화에 따른 개인의 자각과 소외의 문제가 드러난다.

60년대 소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세대 논쟁에 의해서다. 세대 논쟁은 김주연이 「새 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에서 60년대 등장한 신세대 작가들-김승옥, 서정인, 이청준, 박상룡 등-의 문학을 강하게 옹호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50년대 작가인 서기원이 60년대 작가들은 역사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자, 김현이 이를 반박하면서 논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 논쟁에서 많은 비평가들은 김승옥을 60년대 대표작가로 주목한다. 왜냐하면 “60년대 문학의 새로운 감수성과 신선한 목소리를 바로 김승옥 소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sup>91)</sup>이다.

김승옥은 1960년대 시대상황과 특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가이다. 그는 암울한 시대에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개인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근대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동인문학상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

91) 권성우, 「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p. 20.

내가 관찰하고 내가 고발하고 있는 시대의, 특히 부정적인 인간을 쓴 것입니다.<sup>92)</sup>

너무 소박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질서는 인간이 잔인해지지 않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저는 저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짓 저편에, 가슴 저편에 또는 조직의 회칠한 대문짝의 저편에 숨어 있는 적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그의 모습을 뚜렷이 봄으로써 저는 적으로부터 행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저는 앞으로 얼마 동안은 저의 작품으로 삼고 싶습니다.<sup>93)</sup>

작가 김승옥이 말하는 질서란, 인간이 잔인해지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1960년대는 근대화로 인해 사회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인간들의 정신은 날로 황폐해져 갔다. 인간은 생존 경쟁에만 관심이 있을 뿐 타인에게는 무관심하다. 사회 전반은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만이 날로 커져갔다. 김승옥의 글쓰기는 이러한 1960년대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승옥 소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작품분석이 몇 몇 단편소설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편소설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한 작가론의 경우에도 작품을 전/후기로 나누어 전기 소설은 사회와 개인간이 진정한 모색이 이루어진 반면, 후기소설은 대중·통속소설로 전락했음을 들어 이를 작가 인식의 한계

---

92) 김승옥, 대담 「서울 1960년의 외로운 방랑자」, 『33인의 자서전-오늘의 한국문학 33인 선별권』, (양우당, 1988), p. 75.

93) 김승옥, 「동인문학상 수상 소감」, 『뜨거운 세상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p. 152.

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김승옥 전 작품을 세밀히 읽은 결과, 후기 소설에서도 전기 소설과 못지않은 자기모색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김승옥 소설의 변모 양상을 살폈다. 먼저 인물의 현실대응양상과 세계인식을 살펴 본 후 이를 당대의 현실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김승옥 소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을 알았다. 물론 전기/후기 소설의 특징을 모두 보이는 과도기적 작품도 있는데, 이는 편의상 전 단계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초기작 「생명연습」을 통해 전면 제기된 ‘윤리의 위기’와 ‘자기 세계’를 다루었다. ‘윤리의 위기’는 김승옥 전 작품의 나타나는 문제의식으로 그 근본원인은 당대 현실에 있다. 1960년대는 4·19로 인해 인식되었던 자유에 대한 열망이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억압되어 버린 시기이다. 게다가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물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고도의 경제성장정책은 인간소외, 가치의 전도, 물질만능주의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이 속에서 인간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는 모습까지 보인다. 김승옥 소설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자아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자아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며, 이에 제시된 것이 ‘자기 세계’이다. ‘자기 세계’의 양상을 「생명연습」, 「환상수첩」,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 작품에 드러나는 ‘자기 세계’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자아가 외부 세계를 차단하고 형성한 폐쇄적인 ‘자기 세계’와 타인을 억압하고 형성한 ‘자기 세계’가 그것인데 작가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긍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

신의 의식에만 존재하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부조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자는 타자를 억압하고 형성한 위악적인 세계이기에, 이런 자아들이 모인 사회는 파편화된 사회일 수밖에 없다. 김승옥 소설에서 진정한 ‘자기 세계’는 없다. 진정한 ‘자기 세계’를 가지지 못한 인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생명연습」, 「환상수첩」의 인물처럼 죽음을 선택하거나 「무진기행」의 윤희중처럼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Ⅲ장에서는 현실에 순응하여 사는 인물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의 단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방황하며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근대화된 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소외된 자는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안은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서울 1964년 겨울」이다. 「들놀이」는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겪는 불안 심리를 포착하여 보여 준 작품이며, 「차나 한잔」은 이와 함께 ‘도회의 어법’만이 난무하는 거짓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가치가 교환가치로 바뀌는 양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인간은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가치는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다. 「빛 속의 무덤」, 「싸게 사들이기」, 「염소는 힘이 세다」는 자본주의 논리로 인해 훼손된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 준다. 사회의 부조리는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며, 인간은 더욱 위악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내가 흠친 여름」, 「60년대식」, 「야행」은 이러한 인간의 위악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훼손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 60년대 후반의 작품은 자기반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후에 ‘진정한 삶’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보통여자」, 「서울의 달빛 0장」은 남녀의 관계마저 소유의 관계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변부인」은 자본이 축적될수록 생긴 인간의 정신적 공허함을 성적 쾌락으로 메우려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강변부인」에서 보인 인물은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고, 오히려 부정만 들키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합리화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이들 작품에서 보인 인물의 모습은 이전 소설의 인물보다 더욱 추악하다. 작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후기 소설에서 보여줌으로 인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인식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후 이를 통해 ‘진정한 삶’을 모색하게 된다. 「그와 나」는 적당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나’와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를 통해 ‘진정한 삶’이란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들의 낮은 울타리」도 ‘진정한 삶’은 ‘생활’과의 투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먼지의 방」에서는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을 정지하고 살아가는 영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의 허구성을 드러낸다. 부조리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 대한 판단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갖고, 현실과 끊임없이 싸워나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비록 「먼지의 방」은 광주사태의 발발로 미완성된 작품이지만, 영기와 소암선생을 통해 작가의식이 뚜렷이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김승옥 소설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결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갈등과 진정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보통여자」, 「강변부인」과 같은 몇몇 후기 작품에서 인물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이 두드러져 작가의식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후기 작품에서 작가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작가는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물을 통해 현실을 직시시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올바른 삶이란, 올바른 가치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승옥 소설이 타락한 시대에 개인의 현실대응 양상을 보여주고, 이는 개인이 진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과정임을 구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재적 의미를 밝히는데 치중한 나머지,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는데 소홀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60년대 개인의 의식을 소설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60년대 작품들과 비교분석하여 그 의미를 구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돌린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 자료

- 김승옥, 『김승옥 소설 전집』 1~4권, 문학동네, 1995.
- 김승옥, 『뜨든 세상에 살기에』, 지식산업사, 1977.
- 김승옥, 『싫을 때는 싫다고 하라』, 자유문화사, 1986.
- 김승옥, 대담 「서울 1960년의 외로운 방랑자」, 『33인의 자서전-오늘의 한국문학 33인 선별권』, 양우당, 1988.

### 2. 학위논문

- 김명석,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00.
- 김민수, 「1960년대 소설의 미적 근대성 연구-최인훈과 김승옥의 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 1999.
- 김보우, 「김승옥 소설의 글쓰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9.
- 김정남, 「김승옥 소설의 근대성 담론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2.
- 노현주, 「김승옥 소설 연구-의미구조와 사회 변동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0.
- 박진영, 「김승옥 소설의 주체구성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0.
- 배현자, 「김승옥 소설의 풍자성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1.
- 서은영, 「김승옥 소설 연구」, 성신여대 석사논문, 1998.
- 성수미, 「김승옥 소설 연구-라캉의 욕망이론으로 본 소설의 서술적 특징과 욕망의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석사논문, 1999.
- 손덕균,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배재대 석사논문, 1998.
- 송은영, 「김승옥 소설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7.

- 송태욱, 「김승옥과 ‘고백’의 문학」, 연세대 석사논문, 2002.
- 안혜련, 「김승옥 소설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1999.
- 오혜진, 「김승옥론-내면의식과 작품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1.
- 유홍주, 「김승옥 소설의 정신분석학적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0.
- 이승준, 「김승옥론-1960년대적 의미에 대하여」,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이승희, 「김승옥 소설 연구-아버지 개념의 이동 및 확대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1.
- 이은애, 「김승옥 소설의 인물 연구-캐릭터의 내면의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8.
- 이호규, 「1960년대 소설의 주체 생산 연구-이호철, 최인훈, 김승옥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논문, 1999.
- 장 현, 「김승옥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가톨릭대 석사논문, 2000.
- 정영훈,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욕망의 발현양상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8.
- 정학재, 「김승옥 소설 연구-인물의 세계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1997.
- 지영선, 「김승옥 소설론-인물의 근대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1998.

### 3. 평론

- 구모룡, 「근대적 삶에 대한 환멸과 서사-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 권성우, 「60년대 비평문학의 세대론적 전략과 새로운 목소리」,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 권택영, 「역사의식을 응집하는 미학적 전략」,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

- 음, 1995.
- 김 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 문학과지성사, 1989.
- ,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 , 「미지인의 초상1-김승옥과 홍성원의 경우」, 『현대 한국 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 김동환, 「감수성과 공간적 상상력의 세계」, 『한국현대소설사』, 삼지원, 1999.
- 김명석, 「김승옥론-유년 체험과 이니시에이션」, 『현역중진작가연구IV』, 국학자료원, 1997.
- 김민수, 「주관적 심미주의의 변주-미적 근대성을 통해서 본 김승옥의 소설세계」, 『작가 세계』, 2000. 봄호.
- 김병익, 「시대와 삶 : 60년대식 풍속변화-김승옥」,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 김주연, 「60년대 소설가 발견」,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4.
- , 「새시대 문학의 성립-인식의 출발로서 60년대」, 『월간 아세아 창간호』, 1969.2.
- 김춘식,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사이 - 60년대 후반~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해서」, 『한국문학연구』 제20집, 1998.
- 김치수, 「김승옥의 소설」,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 류보선, 「김승옥론-개인과 사회의 대립적 인식과 그 의미」, 『한국현대작가연구』, 문학사상사, 1991
- 박종홍, 「반영론적 소설이론의 고찰」, 『논문집』 23, 대구교대, 1987.
-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 윤병로, 「한국근현대소설의 흐름」, 『윤병로 평론 선집2』, 새미, 2001.
- 윤애경, 「김승옥 소설에서의 ‘자기세계’ 양상」, 『한국학 연구』 1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00.
- 이남호, 「삶의 위기와 내면으로의 여행」, 『문학의 위족 이남호 평론집 2-소설론』, 민

- 음사, 1990.
- 이동하, 「성인의 환멸」,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 이어령, 「죽은 욕망을 일으켜 세우는 逆유토피아」,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 이정석, 「김승옥 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송실어문』 제13집, 송실대학교, 1997.
- 이태동, 「자아의 시선과 미망의 여로」, 『김승옥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5
- 장세진, 「일상적 삶의 실존적 깨달음-김승옥론」, 『비평문학』, 한국비평문학회, 1987.2.
- 정과리, 「유희 그리고 공포-김승옥론」, 『오늘의 작가총서-염소는 힘이 세다』, 민음사, 1980.
- 정현기, 「김승옥과 1960년대적 불안」, 『한국 문학의 해석과 평가』, 문학과지성사, 1994
- 조남현, 「미적 세계관의 입사식」, 『자선대표작품집-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아출판사, 1991.
- 조진기, 「불안한 감수성과 퇴폐적 일상」, 『작가연구』 6호, 1998. 하반기.
- 진정석, 「글쓰기의 영도-김승옥론」, 『문학동네』, 1996. 여름호.
- 천이두, 「존재로서의 고독-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문학선-무진기행』, 나남출판, 2001.
- 최혜실, 「‘무진기행’에 나타나는 귀향과 귀경의 구조」,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4.
- , 「김승옥 소설에 나타나는 ‘여행’과 ‘산책’의 테마」, 『한국현대소설의 이론』, 국학자료원, 1994.
- 한상규, 「환멸의 낭만주의-김승옥론」, 『196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 한형구, 「역사에의 두려움, 혹은 생활에의 의욕」, 『한국 근대문학의 탐구』, 태학사, 1999.
- 홍정선, 「작가와 언어의식-해방 후 소설을 중심으로」, 『역사적 삶과 비평』, 문학과지성사, 1986.

#### 4. 단행본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 권오현, 『1960년대 한국소설 연구』, 문예미학사, 2000.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 김현주, 『1970년대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0.
- 김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 나병철,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 박철화·김시대 외, 『한국현대문학사』, 시문학사, 2000
-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 상허학회,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체』, 깊은샘, 2004.
- , 『새로쓰는 한국작가론』, 백년글사랑, 2002.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셋길, 1991.
- 안형관, 『인간과 소외』, 이문출판사, 1995.
- 역사학 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5.
- 윤병로, 『한국근현대소설의 흐름』, 새미, 2001
-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1983.
-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1999.

#### 5. 번역서

- 게오르그 루카치,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 뒤르켐, 『자살론』, 임희섭 역, 삼성출판사, 1990.
- 레이먼 셸던, 『현대문학이론』, 현대문학이론연구회 역, 문학과지성사, 1990.

뤼시앵 골드만, 『소설 사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 청하, 1982.

뤼시앵 골드만, 『숨은 신』, 송기형·정과리 역, 연구사, 1986.

뤼시앵 골드만, 『인문과학과 철학』, 김현 역, 문학과지성사, 1980.

르네 지라르,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77.

에릭 프롬, 『건전한 사회』, 범우사, 1977.

장 보드리아르,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황중연 역, 1999.

칼 마르크스, 『188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최인호 역, 박종철출판사, 1991.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김명환·정남영·장남수 역, 창작과비평사, 1986.

프리츠 파펜하임, 『현대인의 소외』,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4.

## 국 문 초 록

김승옥은 혼란한 1960년대 상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가이다. 김승옥이 1960년대 대표 작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세대 논쟁부터이다. 이 논쟁에서 많은 평론가들은 김승옥의 소설들이 당대의 사회전반에 일어난 변화와 그에 대한 개인의 의식 및 갈등을 가장 잘 반영하였으며, 언어적 측면에서도 참신성이 돋보이는 작가로, “감수성의 혁명”, “60년대 문학의 기수”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승옥 소설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후소설과 비교하여 김승옥 문학의 새로움에 주목한 세대론적인 연구, 개별 작품연구, 김승옥 소설전체를 통시적으로 본 작가론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범위가 단편 소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중·장편소설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 김승옥 소설의 변모양상을 살핌에 있어 그 시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김승옥 소설을 살펴보았다. 소설 속 인물은 당대의 특수한 관심, 정서적·도덕적 성향, 욕망과 같은 내면적 특성이 부여된 상상적 존재이다. 이러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소설은 타락한 세계에 문제적 개인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살피는 것은 당대 현실의 문제점과 이를 통해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인물의 현실대응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김승옥 소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 소설은 「생명연습」부터 「무진기행」까지로, 이 시기의 소설은 타락한 현실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방황하는 개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윤리의 위기를 느낀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세계’를 형성하나, 이는 타인을 억압하거나, 외부 세계와 단절된 폐쇄적인 성격을 보인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를 비판하여 자살하거나, 타락한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후기 소설은 「차나 한잔」부터 「먼지의 방」까지이다. 이 시기의 소설은 타락한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였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 한 채 이루어졌기에 정신적 가치 상실,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사상 등 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켰다. 인간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 여김으로써 사회의 질서는 점점 무너져갔다. 후기 소설은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60년대 후반 소설에 가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락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자각과 반성이 보인다. 타락한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애착을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후기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후기 소설은 통속 소설로 전락하여 어떠한 작가 의식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였다. 그러나 김승옥 소설 전체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는 개인이 타락한 사회에서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전기 소설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방황하는 개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면, 후기 소설은 타락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을 찾기 위해 갈등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후기 소설이 전기 소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혔으며, 단편소설 못지않게 중·장편소설에서도 작가 의식을 찾아 볼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